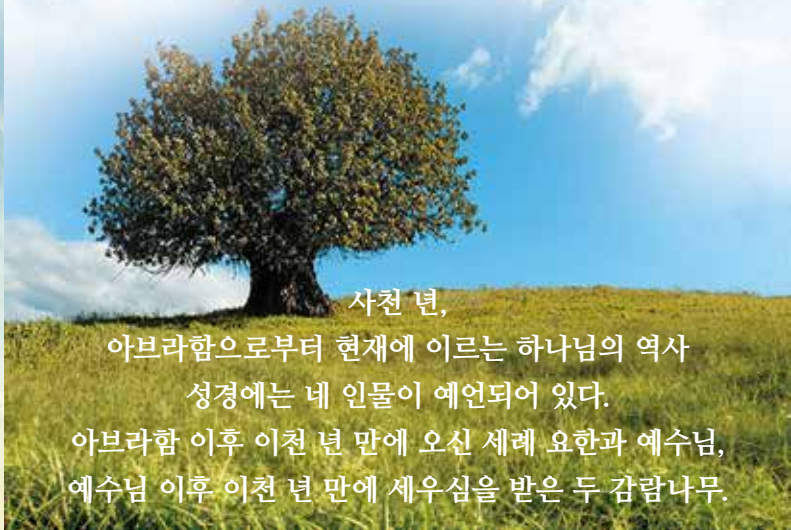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천국은 있는가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천국은 있는가

발행일 | 2012년 7월 20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94-6

ISBN 978-89-6449-223-9 (세트)

천국은
있는가



저자 (2008년 당시)



알곡성전. 이긴자의 이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와 성전 마당의 분수대 앞에 닿으면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이긴자에게,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되리라.”는 언약을 주셨다.



알곡성전과 부대시설. 오른쪽 끝에 2별관과 그 왼쪽에 1별관이 있고, 그 위로 3별관과 알곡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 왼쪽 아래에 위치한 야구장과 축구장 위로 꿈의 성과 놀이동산이 있고, 그 위로 대규모 공연장인 문화의 전당이 있다.

Prologue

“책머리에”

- 두 감람나무를 증거하여 -

이영수 총회장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 목회자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1973년에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35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1970년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뵈고 온 후, 3년여에 걸쳐 거의 사흘에 한 번 꼴로 이상 중에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상 중에 성경을 보면 군데군데 빈 곳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들여다보라 하셔서 보면, 영화를 보듯이, 장면이 나타났다. 그 속에서 그 시대 선지자가 나와 감추어진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딱히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물 쏘듯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7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6권의 설교집이 나와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 모든 내용을 드러내어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며, 때가 되기까지 인봉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것이다. 그 과정을 알려주신 것이 성경 내용인데, 성경에 비밀을 다 드러내면 마귀가 알게 되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또 아무런 말씀을 안 해 놓으시면 어느 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적절하게 감추시면서 또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때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나오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넷이 있다. 두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고, 또 다른 두 사람은 두 감람나무이다. 앞의 두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천 년 만에 등장했고, 뒤의 두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천 년 만에 등장했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로는 구약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와 신약 시대의 사도 요한이 있다. 스가랴는 두 감람나무를 ‘기름부음 받은 두 사람’으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선 자’라고 설명하였고, [\(슌4:14\)](#)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서 두 감람나무를 당신의 두 증인으로 세워 권세를 주시고 예언을 하도록 정해 놓으셨음을 전하고 있다.(계11:3-4)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선입견을 버리고 이영수 총회장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검토함으로 진리를 깨닫기를 바란다.

이 글은 이영수 총회장이 그동안 했던 3,500여 편의 설교 중에서 일부를 골라 정리한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내용을 문어체로 바꾸고자 했으나, 가능한 한 설교 중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많이 손대지는 않았다. 또 군더더기를 없애고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설교의 맥락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다른 곳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그대로 두었다. 여기에 모든 설교를 포함시킬 수 없기에, 필요한 곳에 다소 내용을 첨가하기도 하고, 전체 흐름과 무관한 부분은 빼기도 하였다.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만의 하나 실수가 있다면 전적으로 편저자의 책임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타이핑과 교정을 해 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용 검토에 참여해 주신 성회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년 5월 교육학박사 윤상학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 (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 (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 (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 (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 (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책머리에 ... 06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09

Part 01.

천국과 지옥

- 01 천국은 아직 없다 22
- 02 지옥도 아직 없다 30
- 03 하나님의 의도 34
- 04 음부의 열쇠 39
- 05 왜 순교해야 하는가? 43
- 06 언제 살리는가? 50
- 07 먼저 재판관이 만들어져야 심판을 한다 58

Part 02.

하나님의 섭리

- 08 하나님의 적, 마귀 64
- 09 하나님의 그림자, 아브라함 69
- 10 첫 언약과 새 언약 74
- 11 예수님의 상징, 이삭 81
- 12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91

Part 03.

멜기세덱의 제사장

- 13 임마누엘의 제사와 제사 제도의 변경 98
- 14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 102
- 15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107
- 16 부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 121
- 17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 131
- 18 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 137
- 19 멜기세덱의 제사장, 예수님 145
- 20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151

Part 04.

감람나무

- 21 야곱과 영적 야곱 156
- 22 이긴자의 그림자, 야곱 167
- 23 이기는 자를 요구하심 172
- 24 생수의 유업 178
- 25 이긴자의 할 일 182
- 26 감람나무의 그림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189
- 27 스톱바벨과 감람나무 198
- 28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206
- 29 알곡과 이한 낫 213

Part 05.

하늘 군병

- 30 어린 양의 생명책 224
- 31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 230
- 32 한 때, 두 때, 반 때 239
- 33 영의 전쟁 244
- 34 군병이 받을 권세 250
- 35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청함 받은 자들 255
- 36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265
- 37 하나님은 아무나 뵈지 못한다 270
- 38 “나를 위해 살아다오.” 273

Part 06.

간증

39 여호와 알현 278

40 알곡성전 건축 지시 288

41 알곡성전 건축 후 이상 299

42 원시생활 모습과 가인의 표 305

Part 01.

천국과 지옥



1. 천국은 아직 없다 · 2. 지옥도 아직 없다 · 3. 하나님의 의도 · 4. 음부의 열쇠 · 5. 왜 순교해야 하는가? · 6. 언제 살리는가? · 7. 먼저 재판관이 만들어져야 심판을 한다

Chapter 01.

천국은 아직 없다

2005년 10월 9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요즘 주의 종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대단히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지만, 아직 천국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지옥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바로 천당 간다, 지옥 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죽으면 “이 사람은 주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위안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천국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어온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

는 의혹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신이 없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1:12)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1:8) 그는 그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 수천 명을 상대로 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뿐 아니라 20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수백억에 이르는, 그동안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했지만,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죽게 되면 무덤으로 오질 말고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 했어도, 아무도 갈릴리로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마26:32, 28:7, 10) 그게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놀랄 일을 했다 해도, 현실에서는 그걸 믿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이서 주님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마17:1) 세 명이 비몽사몽간에 똑같은 환

상을 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취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마17:5) 하는 말씀이 내려오는데, 이 환상을 보는 세 제자들 눈에, 한쪽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섰고, 한쪽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주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서 있었는데, 이 세 제자들이 눈을 뜨는 순간에, 양쪽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있었습니다.(마17:8)

이 사건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게 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마17:10)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말4:5) 이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마17:12) 그를 알지 못하고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세 제자들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알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마17:13)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시자, 제자들이 주님과 조용하게 있는 시간에 베드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마19:27)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8)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대가를 받은 다음에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역대 선지자들의 영들과 순교를 당한 영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12제자들과 같이 심판하는 영적인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지성소는 뭐냐? 일 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일 년 동안의 모든 내용들을 고해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장소를 말합니다.(레16:17) 그곳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하늘나라의 지성소는 하늘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보좌에 앉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계20:4-6)

이 지성소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있는 순교자들을 대하니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계6:10) 이때 주님께서 “좋아. 당장 하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계6:11)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 하늘에 올라가서

서 지금 그곳에 계시는데, 영적으로 최고의 권한을 쥔 권위자, 즉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우습게 본 것들을 혼내 주고 싶어도 혼을 못 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모든 체제가 잡힌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교를 당해서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들까지도 아직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천국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이 죽어서 영의 세계에 간다고 하늘나라에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도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천 년이 금방입니다. 우리에게나 천 년이 길게 느껴지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1974년에 요한 계시록을 강해할 때, 천 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천 년 동안, 그 긴긴 세월 뭘 할 건가, 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상 중에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천 년이 긴 줄 알지만, 네가 사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길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잠시에 불과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인생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제가 ‘천국 간 사람이 없다. 지옥 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나쁜 짓하면 지옥 가지, 왜 간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에 지옥이 있다 해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릴 때 뿔 달린 마귀가 긴 창을 가지고 지옥에 사람을 던지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바티칸, 로마 교황이 계신 곳에 가서 제가 돌아보면서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벌주기 위해 앞으로 만드시는 곳이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계20:10)

요한 계시록의 말씀 중에 이리이러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계20:15) 또 이리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계20:12) 그러면 이 내용들은 지금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건 불멸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터인데, 내가 먼저 내 보좌에 앉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살게 해 주겠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없는 곳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과거에 이상 중에 가르침을 받을 때, 이상 중에 성서에 빈 곳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감추시고 비밀로 남겨놓으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다보라 하셔서 볼 때, 그게 화면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을 보시면 그 장면들이 안 잊힙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집니다. 설교를 할 때에는,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얘기해 주듯이, 주의 종이 이상 중에 본 장면들을 떠올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맨송맨송한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성령이 오면서 그 장면이 떠올라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보러 올 때,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한 번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얘기를 한다하면, 보여주신 게 있고, 주님이 설명하신 게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요6:53) 그런데 그게 아무 때나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요6:54)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마지막, 마지막 하셨는데,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막은 천구백 몇 년도 어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마24:36)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을 압니까? 주님이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만날 말세라고 그러합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데리고도 말세, 그저 병만 고치면 거기 뭐가 있

는 것처럼 복적거리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옥이 있느냐? 지옥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무엇이 있는가? 현재 하늘나라에는 지성소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목 베임을 받은 순교자들만 가 있는 것입니다.(계6:9) 백성들이 살 천국은 최후의 심판 후에 앞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 중에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앞으로 만들어질 거룩한 성을 보여줘라.” 해서 제가 보여주시심을 받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상 주시는 장소인 천국연회장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얘깁니다.

Chapter 02.

지옥도 아직 없다

2005년 9월 11일, 주일 낮 예배 설교 중에서



기독교가 2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나쁜 짓하면 지옥을 갑니다.” 이렇게 종교를 전파하면서 착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때의 지옥이라는 장소를 흔히, 소위 마귀가 무엇인지 몰라도, 마귀가 있는 곳에 있다고 상상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그렇게 알고 믿다가 운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의 문제를 모를 때에 단순하게 논하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서 하늘의 섭리를 알게 되므로 비로소 지옥이 그런 곳이 아니구

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계20:14) 이렇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된다.’(계2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한 모든 영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육의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을 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춰졌던 모든 문제들이 밝혀지게 되는 동기는 바로 영의 문제를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 하면, 영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옥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이란 곳은 왜 있습니까? 감옥은 죄인들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해를 가하거나 안전을 훼손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고자, 죄인들을 따로 살게 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벌을 주면서도 누우치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감옥입니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곳도 감옥처럼 깨우치고 올바르게 만들고, 누우치도록 하는 곳이야? 아닙니다. 지옥이란 것은 이미 저지른 대가를 혹독하게 받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누우침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곳은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곳은 시간이 몇

년이다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계 20:10)

세세토록 행한 대가로 고생을 하는 장소, 이 장소를 성경은 지옥, 혹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참작을 받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일단 정해져서 지옥에 들어갔다 하면 다시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 지옥은 하늘나라에서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지옥이라는 걸 제대로 알리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이태리 로마를 갔더니, 안내원이 단테를 기념하는 장소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다녔던 교회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분이 좋아했던 여자라고 해서 그림도 그려져 있고, 단테의 흉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 계시록을 보면서 지옥과 연옥이라는 것을 상상을 해서 ‘신곡’이란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모르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흥미로운 겁니다. 저도 그걸 읽어 봤는데, 주의 종이 볼 때 엉터리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 참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정말 지옥을 가 본 것처럼 느낄 정도로. 신곡이란 책이 17년 걸려서 소설로 쓴 책인데,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지옥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적 때문에 만듭니

다. 누가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어디다 만드시는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만듭니다. 저는 그걸 33년 전에 보여주셔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도 영의 세계를 가르침 받기 전에는 지옥이 땅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음부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서, 땅속에 지옥이 있는 모양이다, 사람들의 영혼이 깜깜한 땅속에서 고통을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넓은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는 태양계라 해서, 태양이 비춰서 지구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의 130만 배가 크다고 하는데, 어쨌든 불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외부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그 안에서 그 광채를 차단하고 어두운 세계를 만들어 놓아 고통을 받도록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지금 있느냐? 아닙니다. 그럼 왜 안 만들어져 있는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죄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Chapter 03.

하나님의 의도

2006년 1월 22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다른 신들을 염두에 두시고, ‘신 중에는 내가 최고다. 나 여호와라는 신이 제일이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사실은 시초부터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에게 펼쳐 왔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신을 상대로 하는 문제를 논할 수가 있느냐? 논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나중에 가장으로서 집안을 끌어가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자식이 공부도 해야 하고, 세상도 알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성숙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람 구실을 하도록 먼저 만

들어 놓은 다음에, 네가 할 일이 뭐다, 뭐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철부지 어린 유치원 학생한테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백 번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공대를 만드는데 아무런 훈련도 없이 가정에 있던 애들을 끌어다가, “너, 나가서 전쟁해라.” 하면 전쟁이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이 정도면 나가서 전쟁도 할 수 있고, 적진을 침투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할 때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시작부터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빼내시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성경의 시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기고 에덴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다시 찾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입니다.(행 3:21)

사도 바울이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둘째 아담은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고전15:45, 47) 복귀시키는 일이 하나님 역사의 중점입니다. 잃었던 아담, 하와를 다시 찾아내겠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내려면, 찾아내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아 올 때는, 빼앗겼을 때보다 거기에 더더욱 많은 내용

과 필요한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던 것도 잃었던 것을 찾으시려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나 혼자만 있다면 내 것을 빼앗길 리가 없습니다. 빼앗아 갈 상대가 있을 때 빼앗기기도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이 없었다면, 아담이라는 존재를 빼앗기는 과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3:21)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입니다.(요일3:8) 또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도 역시 그렇고, 모세를 세우신 것도 역시 그런 뜻이고, 역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것도 역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하신 성서의 모든 원리를 볼 때,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귀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조건을 만드시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복귀하시려는 목표가 뭐냐? 옛날 아담, 하와를 하나님 곁에 두시고 다스렸던 것처럼 다시 다스리는 세계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스리시겠다고 모든 순서를 세워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면, 선지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셨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셨다면, 그 다음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나의 두 증거자에게 권세를 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겠다.”(계11:3-4) 하고 말씀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천국이라는 세계는 안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스리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 성경 내용이지, 다했으니 올라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사라지리라.”(사65:17, 계21:1)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을 착실하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이들을 직접 치유하시면서 영원히 눈물이 없는 세계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이러이러한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죽으면 곧 천국으로 가느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실 적에, 제자 하나가 그랬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오냐, 같이 가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은 갈 수가 없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올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너희들이 오게 된다.” (요14:3)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Chapter 04.

음부의 열쇠

2000년 7월 9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기독교는 영의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종교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원한 사후 세계, 즉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가 어디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죽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려는 주의 증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 봤습니다. 실제 죽었을 때 상황을 이상 중에 겪어 본 것입니다. 또 남이 죽는 광경도 현실에서는 못 봤지만 이상 중엔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죽은 그 사람에게 안내자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지하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저승사자는 땅속이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음부에서 옵니다. 그 마귀가 왜 오느냐? 여러분들의 생명체는 마귀 것

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8:44)

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눅4:6)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을 마귀가 데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생명체는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 하면, 죽자마자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기 있는 육은 70살까지 세상에 살던 내 몸이고, 지금 나라는 존재는 총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영이구나.’ 우리는 육체를 가졌으니까 거울로 보면 자기를 보는데, 죽은 순간에 아무리 거울에 비춰 봐도 자기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기 모습을 아는 게 신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느낌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게 묘한 겁니다. 굼벵이가 7년 동안 땅속에 있다 매미가 될 때, 전혀 다르게 바뀌어 버립니다. 영도 그렇습니다. 영이 되는 순간부터의 생명체는 어제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기라는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영은 음부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 음부의 주

인공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다스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도 음부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음부에 가서 하나님의 종들을 데려가시려면 음부에 드나들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계1:18) 하신 겁니다. 그 조건을 만드신 다음에, 음부에 가 있는 영들을 주님이 끌어내신 겁니다. 마태는 이상 중에, 무덤이 열리며 선지 성인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마27:51-53) 그것은 주께서 음부의 영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음부에 있는 영들 중에도 아무나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과 목 베임 받은 영들에게만 해당됩니다.(계5:9, 6:9) 그들은 현재 하나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에덴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창2:17)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창3:4)고 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조건을 내세우고, 어둠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대로 조건을 내세울 때, 하나님의 조건에

반대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얘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귀를 경계하도록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공식적인 게 모세 때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출20:3) 그것을 계명의 제 일조로 내세우십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이 손을 대지 못할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마귀가 그 영을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동적으로 천사들이 와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이런 겁니다.(마16:18) 반대로 천사도 자신이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의 생명체가 아니면 안 옵니다. 아무리 불러도 천사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 영은 어둠의 세력이 와서 데려가게 됩니다.

Chapter 05.

왜 순교해야 하는가?

2005년 10월 16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서, 주의 종이 “지금은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고 폭탄선언을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성령이 같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뒤가 썩길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천국을 못 가는가?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죽은 영들은 지금 어디 가 있느냐? 때가 되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 받고, 멸망 받을 사람 멸망 받게 됩니다. 아직 그때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신다.”(히10:13) 다윗이 예언한 말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사110:1) “내 사랑하는 아들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면 내 우편에 앉아서 그의 원수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게 된다.”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사110:4)

예수 믿는데 왜 천국을 못 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진다. 또한 네가 음부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임의로 가질 못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한다.”(마4:19, 16:18-19, 요21:18) 베드로가 무슨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베드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다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령이 내려서 수색망이 좁혀져 오니까 로마를 떠났습니다. 다른 데로 도피를 한 것입니다. 도피를 하던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로마에 왜 갑니까?”

“네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가니까, 내가 또 한 번 로마에 가서 너 대신 죽기 위함이다.”

베드로가 뉘우치고, 죽는 길을 택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가자

마자 붙들렸습니다. 붙들려서 베드로는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죽음이 이르렀을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시키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돌아가셨지만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자리에 오늘날 바티칸 성전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앞으로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실 때 그 길이 뭐냐?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네가 죽어야 음부의 지배를 안 받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순교를 당해야만 음부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을 주께서 죽게 인도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를 지성소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님의 작업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음이 두려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십시오.”(마26:39)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들이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약해지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습니다.(눅 22:43) 주님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힘을 받은 주님이 다시 용기를 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죽음을 맞아들일 적에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눅22:44) 하나님의 아들 역시 원치 않는 길을 가도록 여호와께서 이끄신 겁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주를 증거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늘을 보니, 내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신다.”(행7:56) 주께서 스테반이 죽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돌이 날아와서 머리가 깨지고 코가 날아가고 육체가 망가지는 속에서 그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행7:60) 이게 기독교입니다.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면 지성소에 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못 가면 음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요 왕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예언으로 안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 보여주심을 받는 가운데 구세주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자기 후손으로 태어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는 인물이 아니면, 누구도 음부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씌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시16:10)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통하

지 않으면 누구도 음부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이상 중에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보라!” 하셔서 앞을 보니까, 한 삼십 미터 앞에 엎어진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시체니라.” 목이 달아났습니다. “보라, 바울이 일평생 충성하고 저렇게 끝내 죽임을 당했다.” 저도 그렇게 충성하라 하시는 뜻인 줄 압니다.

다행히 오늘날은 목이 달아나는 시대가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는 시대니까 저부터가 안 죽고 살아 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 가기 위해 저도 순교를 당해야 합니다. 그것도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이 순교자들만 데려다 모아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나중에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질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미워해서 일평생 고생시키다가 끝내는 관에다 넣어서 톱에 잘려 죽게 하고, 불에 던져 넣어 타 죽게 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비유로 설명을 드립니다. 전쟁을 할 때 적군이 요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고 칩시다.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면, 그 요지를 초토화 시키는 특수부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

부대는 이것을 어떻게든 작살을 내서 파괴를 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거기에 뽑힌 사람들은 살아남을 생각을 못 합니다. 그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선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특공대입니다. 그럼 특공대가 왜 그 일을 하는가? 나머지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어서 전쟁에 이겨야 가족들이나 후방에 사는 백성들이 편안해지니까,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저걸 없애 버리자, 이렇게 전쟁입니다.

만약에 그 진지를 부수는 멤버가 10명이 필요하다면, 이 10명은 그야말로 그 진지에 가서 상대를 없앨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걸 부수려면 10명이 필요하냐, 20명이 필요하냐, 이 건 전략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이 10명이 그 중요한 진지를 부수므로 나머지 많은 백성들이나 많은 군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평화를 얻는다면, 그 10명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있어서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정해 놓으셨습니다.(계14:1) 이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할 일을 해라. 너희들의 할 일은 이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이 모든 걸 성취시키고 나야 평화가 옵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계21:1)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잘 믿던 사람들, 못 믿던 사람들을 갈라 세우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잘 믿던 사람들은 평화의 천국을 얻게 되는 거고, 이 범죄자들은 불행하게도 불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Chapter 06.

언제 살리는가?

2002년 1월 20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막상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원리를 설명하라 하면 못합니다. 종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근래에 와서 기독교의 핵심인 영생의 조건을 조심스럽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성서적으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조금씩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4) 하고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초막절이 끝나는 날, 많은 사람을 향해서 생수에 관해 설교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7:38)

또 영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요6:39) 영생의 조건은 우리 주님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또 구약 시대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말씀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55절부터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실질적인 영생의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서가 영생에 이르는 길잡이입니다. 성서의 원리를 깨달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원리가 좋다고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하여 주는 자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롬10:14)

영생의 조건을 모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영생을 얻자고 믿는 겁니다. 자기 목이 달아나도 믿음을 지키고, 불에

타 죽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영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고전15:19) 다시 말해서, 영생하는 조건이 없다면 예수를 믿으며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주님이 영적인 말을 하시면 언제나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끼리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수군거리지만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요6:61)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얘기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뭐냐 하면,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구세주께서 내 후손으로 탄생하시게 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시 16:10) 영생을 얻길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또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될 모든 광경을 보여준 다음에, 제가 이런 것은 모르겠으니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했더니 “네가 알 바 아니다. 가서 편히 쉬다가 마지막 때가 돼서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네가 네 업을 그때 누리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너는 죽어서 평안히 있으라.”(단12:9, 13) 이렇게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막연한 얘기같이 들려도, 구약 성서에

도 영생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영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영생의 조건이 다 나를 두고 기록한 것이니라.”(요5:39)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애기인가 했더니,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영생의 조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요6:54) 하고 폭탄선언을 하신 겁니다. 영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친 겁니다. 왜 그런가?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조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코가 쑥 빠져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한 얘기는 육적인 얘기가 아니다. 육은 무익한 거야. 육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영생의 조건을 가질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한 말은 영의 얘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6:63) 이걸 나중에 보충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고전15:42)

또 제자들은,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먹든 간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씀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럼 마지막이 뭐냐 해서 조용하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에는,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마24:36)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목회자가 됐든, 강통을 찬 거지가 되었든, 죽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 단강 건너가 만나리.’ 모든 게 죽음으로써 영생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요3:16)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아니라고 밝히려니,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면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앞세우지 아니하면 제가 바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습게 볼지 몰라도 주님을 우습게 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영생의 조건이 없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날을 모른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모르고 지내야 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가서서 영생의 조건에 대해 답을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시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내용을 설명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긴자’입니다.(계2:17)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흰 돌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17) 감추었던 만나는 주의 살과 피를 말하고, 흰 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긴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긴자가 나타나는 시대부터 비로소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에 기록된 마지막이 뭐냐?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최고의 적수인 마귀라는 존재가 멸망을 받는 순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신에게 마귀가 굴복해서 완전하게 멸망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마귀가 멸망되는 날이다, 이러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마귀가 멸망을 받거나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를 멸망시킬 군대의 완성입니다. 그럼 주의 종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당사자니까 아는 겁니다. 제가 그 조건을 만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마귀를 상대로 일을 한 하나님의 종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전도하는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조건의 종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마귀를 멸망시키는 조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한 생명이라도 좋으니까 내게 올 수 있는 자를 만들어 달라.” 28년 전부터

제가 그 말을 했잖습니까?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만드신 그 나머지를 채우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고 비밀로 하시면서, 또 주님이 등장하신 후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 오신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돼 있나니, 받는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느니라.”(계2:17) 왜 이긴자밖에 알 수가 없느냐? 전쟁에 관한 극비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끼리 하는 전쟁에도 극비문서가 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는데, 신끼리의 전쟁을 아무나 알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비밀이라도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자에게만 알리는 겁니다.

그럼 그 이긴자가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까? 마귀를 박멸시키는 조건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 마귀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다 하고자 하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옛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에게는 마귀

를 박멸시키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일을 지시하신 겁니다.

Chapter 07.

먼저 재판관이 만들어져야 심판을 한다

2008년 2월 17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오랫동안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 현재 죽은 후에 천국도 갈 수 없고, 또한 지옥도 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섭리를 모를 때는,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천국에 간다.’ 하는 건 기독교에는 빼놓을 수 없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지옥이다 하는 것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공포의 대상입니다. 많은 영들이 아무도 가지 못했다 하니, 예수를 믿는 분들도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상하게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뒤를 강조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롬2:16)

심판이 뭐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재판입니다. 재판을 왜 합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은 형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얼마나 형을 받을 사람이나, 이것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만, 즉 재판을 받아야만 무죄, 유죄가 결정됩니다. 죄가 결정이 나와 감옥에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심판 후에 천국도 지옥도 만들어집니다.

요한 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계20:4) 죽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재판하는데 재판관이 없으면 재판할 수 있습니까? 법정은 있어도 판사가 들어와야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죄수 누가 어느 법정에서 재판을 한대,’ 해서 방청객들이 찾아갑니다. 죄수들도 나와 있고 방청객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사가 그날 못 나왔다고 합시다. 아프든가, 사정이 생겼다든가. 그러

면 정회가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하늘나라에 심판하는 권세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들을 잘했다 못했다, 심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심판하는 재판관들이 만들어져야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의 숫자가 하늘나라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으로 정해져 있는가?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계14:1)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죽은 사람이 수백억이라도 심판하는 판사가 없으니, 판사의 수가 찰 때까지는 죽은 모든 영들은 미결수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고는 다릅니다. 5천 년 전이나 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은 시간관념이 무의미합니다. 살아 있는 우리만 역사다 뭐다 하고 따지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담, 하와를 짓기 전의 하나님이나 아담,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나,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천 년 전에 냉동시킨 사람이 있고, 어제 냉동시킨 인간이 있는데,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녹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3천 년 전에 냉동시킨 사람이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허허, 되게 오래 걸렸네. 3천 년 동안 있다 이제 일어났네.” 또 어제 냉동시킨 사람이 “24시간도 안 되서 내가 얼었다가 지금 깨어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을

못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영이라는 건 그런 관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혹은 자는 자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일어난다.”(고전15:51)고 했습니다. 역조창생들이 순식간에 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세계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를 하나님이 저한테 설명하실 때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나 여호와가 지시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 시간관념을 주시느라고 2,500년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지, 당사자 되시는 신께서는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다. 신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죽게 되면 심판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다 미결수가 됩니다. 천국 가는 문제도, 지옥 가는 문제도, 심판이 끝나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라. 내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데,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한대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뭐가 마지막이냐 이겁니다. 마지막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나는 게 말세라고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이 없어지는 게 대수입니까? 없어지면 또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우리가 몰랐을 때 하는 얘깁니다. 세상이 생

기고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이다, 하는 개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뤄지는 날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마지막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멸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 최고의 소망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뭔지 모릅니다. 영의 세계는 그야말로 영이 사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육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도 보여주신 게 많으니까 주의 종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만큼은 권위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권위자가 된 겁니다. 직분이 이긴자다 보니까 약속한 대로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계2:17)

Part 02.

하나님의 섭리



8. 하나님의 적, 마귀 · 9. 하나님의 그림자, 아브라함 · 10. 첫 언약과 새 언약 · 11. 예수님의 상징, 이삭 · 12.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Chapter 08.

하나님의 적, 마귀

2008년 2월 24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달라서,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원리적으로 알지 못하면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피할 도리가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인 ‘두 증거자’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 가운데 감춰 났던 장면들을 이 시대에 많이 알려 주시게 됨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일찍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당신 곁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동산이라는 곳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덴동산

에 나타나시긴 했어도, 하나님 계시는 장소에 아담, 하와가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21:3)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에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곡성전을 지시해 주셨고, “이 성전을 거쳐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 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사가 남이 볼 때에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류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슌4:10) 하나님과의 교류가 아무 때나, 또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계20: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옛 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뱀은 배로 기어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뱀은 처음부터 배로 기어 다닌 게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창3:14)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창3: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 뱀이 “따먹어라, 괜찮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에게,

“너, 따먹지 말라는 거, 누가 따먹게 했느냐?”

“이 여자가 따먹게 했습니다.”

“너는 누가 따먹게 했느냐?”

“이 뱀이 그랬습니다.”

“네 이놈, 너는 여자를 꼬이고, 여자는 남자를 꼬였으니, 내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게 만든 주동자가 됐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부터 제일 징그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배로 기어 다니게 된다.” 하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주를 받았으니 지금은 기어 다니지만, 옛 뱀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 뱀은 저주받기 전의 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자가 두 번째 범죄인입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서, 애기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애기를 낳을 때 기분 좋게 낳으면 좋은데,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받게 된다.” 또 “아담, 너는 하와를 데리고 살면서,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져서 편안히 살면 좋은데, 너 역시 저주를 받아서 평생 땀 흘리고 고생을 해야 너는 가족들을 끌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세 구분으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옛 뱀이요, 사탄이요 하는 말이 나오는데, 또 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도 용이 뭔지 모릅니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무기가 땅속에서 용이 되기까지 있다가 용이 되면 뿔이 생긴다고 상상을 해서 그런 그림이 용이 돼 버린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 구절에서 상상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신화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잡아 가두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계20:2-3)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백 번 들여다 봐야 무슨 소린지 모릅니다. 용이 뭔지를 압니까? 옛 뱀이 뭔지 압니까? 무저갱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전체가 이걸 모릅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조건을 하늘에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전해 줄 때, 세세토록 사람이 전혀 모르도록 하려한다면 편지를 뭐 하러 쓰게 합니까? 언젠가는 알 날이 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이러한 내용들을 개봉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 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계2:7, 11, 17, 26, 3:6, 13, 22) 하는 때입니다. 이기는 자가 나타나라는 말을 일곱 교회에 할 때마다 이 말이 한군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긴자라는 존재가 뭔지 몰라도, 주님이 “이긴자가 나타나라.”고 일곱 번이나 강조하신다면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한테, “너 이 일을 절 대적으로 해야 돼.” 했는데 대통령 못지않은 사람이 나한테 “너, 안 해도 돼.” 해야 내가 그 사람을 믿고서 대통령이 지시한 걸 거역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떤 일개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당신, 그거 안 해도 돼.” 한다면 내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도 괜찮아, 할 적에 하나님 못지않은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얘기해야 아담도 하와도 믿을 수 있는 거지, 어디서 피라미 같은 게 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여기라고 한다면, 듣지 않게 됩니다. “먹어도 괜찮아. 눈이 밝아져.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실 때는 염려하실 만한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독교가 이해해야 제 말을 알아듣습니다. 전지전능이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 얘기가 이단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Chapter 09.

하나님의 그림자, 아브라함

2002년 9월 19일, 29주년 기념예배 목요일 저녁 설교 중에서



육적인 우리 주님을 배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성서를 통해서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과정은 정말 우리 인간들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들이 창세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근원은 아브라함입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사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한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독특한 한 인물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으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까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은 다소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려는 겁니다.(요3:14)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말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느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마11:13)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한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였고, ‘열국의 아비’라는 칭호를 주셨던 것입니다.(창12:2, 17:5)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자를 나타내

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란 인물입니다. 그 이삭이란 인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산 제물이 된 인물입니다. 성서에 있는 대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시한 산이 어디냐 하면,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입니다.(창22:2, 대하3:1)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운곽을 이미 다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떤 존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걸 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적에 개인 아브라함을 대하시지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이 이미 서 있는 겁니다. 숫자를 불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숫자를 불리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티끌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막 티끌이 날아가는...”

“너 티끌을 셀 수 있겠느냐?”

“제가 그 많은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네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창13:16)

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아이고! 제가 어떻게 셉니까?”

“네 민족이 그렇게 되리라.” (창15:5)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통고하시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17:14)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시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가 내려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지시가 우리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고통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 따라 그러한 지시를 내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시를 이행하면 영의 세계에서 상으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일대일로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은 반드시 너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에 의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으니,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할

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Chapter 10.

첫 언약과 새 언약

2004년 9월 26일, 31주년 기념예배 주일 저녁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첫 언약’(히9:15)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제2의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사실상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것을 정착시키는데 사랑하는 12제자들도 공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각국에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는 기초석을 마련한 것은 역시 바울의 움직임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도 당신을 부각시키고자 어느 정도 묘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율법은 선지자 세레 요한 때로 끝난다.”(눅16:16) 그럼 율법적인 일이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창12:8)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는 이미 바알이라는 신이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있었습니다.(민22:41) 지구상에선 그 당시에 여호와라는 신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교, 불교를 알았지, 여호와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기나 했습니까? 천주교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250년도 채 못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있던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감히 바알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보다 인간들에게 더 알려져 있고, 영광을 받고 있다니.’ 여호와라는 신은 이걸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없애 버려야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고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필요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종들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표를 다는 모릅니다. 신이 무엇을 어떻게 정해서 자기를 쓰는가를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너는 네가 사는 곳에서 붓짐을 싸서 내가 지시하는 데로 들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디

로 가는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왜 가는가? 죽기 전에 너의 후손들이 살 땅을 생전에 다 밟아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의 여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후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하시니까, ‘아! 내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이 퍼지겠구나.’(창17:18)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는 네 생각에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퍼질 줄 알지만, 아니다. 너의 아내가 자식을 낳게 된다.”

“아니, 하나님, 제 부인은 아기를 못 낳는 지가 언제부터인데, 못 낳는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방식으로는 일을 안 하십니다. 언제나 상식 밖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으로 표가 납니다. 이러니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반신반의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잉태치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

삭입니다.

이삭을 낳게 된 다음에는 더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100세가 돼서 난 그 이삭을 통해서 백성들이 퍼진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느 날 그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이겁니다. (창22:2) 이거 역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바쳐라 할 땐 무언가 있을 거다. 상식선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명령이 내려와도 여기에는 어떤 뜻이 계실 거다.’ 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치게 됩니다. ‘하는 데까지 하자.’ 아니나 다를까, 끝에 가서 다른 명령이 떨어집니다. “칼을 거두어라.” 결국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퍼지게 만듭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나?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사도 바울은 ‘첫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피로써 맺어지는 언약이 주의 보혈이라 해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물고 나간 겁니다. (고전11:25, 갈 4:24)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계획을 세우신 후 최초로 대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가 이삭입니다. 세 번째가 야곱입니다. 이런 삼대를 거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모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출3:15)

이 세 인물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결정적입니다. 그것은 이 세 사람이 나타낼 영적인 존재들의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요!” 하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으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16:24)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던 여호와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게 기독교입니다.

할례를 왜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원하시는 겁니다. 할례는 바로 기꺼이 하나님께 피 흘려 우리 목숨을 바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제물을 바칠 때 사람의 목숨을 바칩니다.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인당수에다가 뱃사공들이 심청을 사다가 바친 거 아십니까? 신에게 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모세 율법 때에는 짐승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짐승을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 내게 가져와서 쪼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이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나,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리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피를 흘리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시받은 대로 언약을 맺어서 시행을 합니다. 당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몇 명 안 됩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숫자만 여호와라는 신의 자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하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40억 인구 중에 불러 세웠노라. 이 시대가 너를 거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걸 하는 게 신이십니다. 사람이 판단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첫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말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은 다 첫 언약에 속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몇이 나오든, 왕들이 몇이 탄생하든, 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해 있는 겁니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나고, 네 허리에서 훌륭한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첫 언약은 끝이 납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 없이 메시아입니다. 모세도 큰 선지자지만, 첫 언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

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주인공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언약하고 새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새 언약은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고, 첫 언약은 그 그림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남겨 놓은 발자취입니다.

Chapter 11.

예수님의 상징, 이삭

1975년 6월 29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이 백 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이 많은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창21:2) 이삭을 낳기까지 여호와와는 사라를 아껴 주시고 노인네가 잉태하여 그 아기가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에게 힘을 주고 지켜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모태에서부터 여호와와의 은총을 받아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이삭이라고 짓고, 난 지 여드레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릴 정도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크게 향연을 베풀었습니다.(창21:8) 이때 먼저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컸습니다. 조그만 꼬마를 위해 향연을 베푸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마엘은 자기 이복동생인 그 동생을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보

다 못한 이삭의 생모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를 쫓아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슬픔과 비통에 젖고 안색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비단 하늘의 은총 가운데에 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애지중지하여 길렀던 그 아들과 그 여종이 슬픔을 당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표시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말없이 근심에 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핍박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고민할 것 없다. 너에게 씨가 되고 후손이라 칭함을 받는 자는 이삭밖에 없으니, 사라가 말한 대로 내쫓아라.”(창21:12)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나누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지시가 내려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고로 그네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가다가 나중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을 때, 하갈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여 슬퍼하며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씨가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천사를 시켜서 도와주었습니다.(창21:17-8) 이스마엘은 자라서 자기 어머니가 맺어 주는 애굽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인종을 번식시키기 시작하여, 지금 아라비아가 속해 있는, 석유 파동을 일으킨 아랍 족속의 시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거치적거리

는 것들은 다 제거시켜 버리고, 이삭이 마음 편하게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의 백 배, 천 배의 귀여움을 받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 해가 흐른 후에 오래간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백 세에 준 아들이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너는 그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창22:2)

번제란 것은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피를 흘리게 하고 불에 태우는 겁니다. 산사람을 반으로 갈라서 화장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제사 중에도 가장 처참한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서 가장 힘든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인데, 반으로 갈라서, 그것도 갈라놓은 시체를 태워서 제사를 지낼 것을 명령받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이튿날 자기 아들 이삭의 몸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가 심복으로 거느리는 측근자, 종 두 사람을 거느리고, 이삭을 앞애다 세우고, 나귀에 짐을 싣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리아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일 것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자기가

몇 년 전에 여호와께서 요구한 대로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여
러 가지 짐승으로 제사 드릴 때에, 그것을 쪼개서 하루 종일 기다
린 후에 불이 내려와서 태운 것을 생각하고(창15:17), 그와 같이 이
삭이 제물이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자기가 아끼고 아끼는 그 아
들을 제사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사흘 길을 밤낮으로 걸었습니
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걸어갈 적에,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미
이삭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종들이 보지 못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비참한 생각 가
운데에 울적한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만, 그 마음속
에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나에게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늘,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
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사람을 번식시킨다고 약속한 하나님
이 이 아들을 죽이라고 했으니,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겠지. 만약 이 아이
가 죽는다면 후손이 없지 않느냐?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자손들
이 번식된다는 말씀이 전부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처참하
게 죽이도록 그냥 두시지는 않으실 거다.” 한편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며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땅에 들어서니, 앞에 이상 중에 여호와 보여주신 동산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준비를 갖추고, 사랑하는 이삭에
게,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왔다.” 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라. 나는 애하고 제사를 지내고 내려올 테니, 너희는 짐 보따리를 들고서 나귀를 붙들고서 기다려라.” 이때 사흘 동안 말없이 따라왔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거기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사흘 길을 왔는데, 제사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창22:7)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자기가 견디고 참았지만, 설움이 복받치는 겁니다. 바로 그 양이란 것은 이삭인데, 이삭이 모르고 질문할 때 그 설움을 참고 견디면서 아브라함은 외면하는 가운데, 말만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저 산에다 준비해 뒀으니, 너는 그 나무만 지고 나를 따라와라.” (창22:8)

그를 달래서, 그 주인을 따라온 두 종이 보이지 않는 수풀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쌓을 적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이미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사흘 길을 걸어온 고로, 돌을 들어 올리는 힘이 벅찬 겁니다. 아들을 이 돌 위에다 놓을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들고 가는 돌 위에 땀방울이 떨어지는 동시에 슬픔으로 인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저쪽에다 세워 두고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을 잡아 죽이는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백발노인이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가까이하시고 돌봐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삭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음의 준비가 됐을 적에 이삭을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단 위에 놓으니, 그때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을 눈치 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어린 이삭을 찌르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즉시 명령이 내린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칼을 놓아라!” 눈을 떠서 보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했던 천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여호와께서 아신다.” (창22:12) 이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는 어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되는 것에 부끄럽지 않다. 이제 너는 모든 영광을 얻는 존재로 굳건하게 되고, 너는 이제부터는 대대손손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어떠한 일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그 심정을 여호와 아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창22:16-18) 천사가 와서 여호와 심정을 대신하여 전해 주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 다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려올 적에, 아브라함은 올라갈 때의 수심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으로 인해 희열이 만만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생동안 하나님을 경

외하는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을, 변함이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남은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린 여호와와의 심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계획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때에 움직이셨던 이 모든 광경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질 주님의 움직임을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징이요, 이삭은 주님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자신이 이삭과 같이 움직여야 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방의 산에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린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대하3:1)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천 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지내러 갔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 때 이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죽을죄를 진 사람은 죽여 나무에 매달아라!”(신21:22-23)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갈3:13) 하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던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 땅에서 끊어질 것을 표시했습니다.(사53:8)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선지자는 이렇게, 다른 선지자는 저렇게 당신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을 아시는 고로, 주님은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성서에 예언한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마27:46, 시22:1) 하시며, 시편에 다윗이 주를 향하여 기록한 그 구절까지 인용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러 왔다’ 하시며, 당신의 것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온전히 하늘의 원리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이 평상시에 당신에 관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셨던 호칭은 ‘인자’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요6:53)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가리켜서 직접 말씀하실 적에 ‘사람의 아들’, 즉 ‘인자’란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인자로서 움직일 것을 말씀한 내용에서 온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시8:4) 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대.”(시8:5)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가 인자의 역할을 할 때 천사보다 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여건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앞으로 될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의 영혼이 버림받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시16:10)

이사야서 53장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 중에도 53장에는 주님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특히 띄지 않는 존재로 활약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당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신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 지낼 것을 성서를 통해서 주님은 아시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려서부터, 십자가 지고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앉을 때까지의 과정을 성서적으로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성경 구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가르쳐 줬자 그네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란 것은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요1:29) 이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이삭의 발걸음처럼, 그 어린 양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저주받은 존재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야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Chapter 12.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2001년 2월 25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기독교는 크게 나뉘서 육적인 역사와 영적인 역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역사를 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형상을 어렴풋이나마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육적인 역사를 첫 언약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역사를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깊이 눈여겨보는 이유는 바로 그 자체가 하늘나라에 펼쳐질 형상들을 육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구약 시대를 논할 때 큰 인물 둘을 들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신약 시대 주인공들이라면 두말할 필요 없

이 그리스도와 두 감람나무를 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가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통고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얘기이겠지만, 우리 역사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역사를 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럼 내가 대답을 하마.”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오늘날 와서 보면 성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긴자가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의 역할을 대행하므로 아들과 방불한 대우를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신 겁니다.(계2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하실 때, 모세는 얘기만 듣던 자기 조상의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너를 택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고 간 내용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는 그러한 내용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흐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겁니다. “전하여 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않고 어찌 깨달으며, 깨닫지 않고 어떻게 올바르게 믿겠느냐?” (롬10:14-15)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바로에게로 가라.” 만약에 모세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예, 알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조상 아브라함 때 계획하신 것을 제가 짐작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로서는 “제가 왜 겁니까? 가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길 제가 어떻게 겁니까? 전 자신 없습니다. 못 갑니다. 도망나온 지 40년이 되는데, 거길 어떻게 들어갑니까?” 등등의 이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를 줘서 가게 할 때, 바로한테 가서 “네가 이러 이렇게 하라.” 했더니 모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게 뭐냐?” 그는 목동이니까 양을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갑자기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해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빠니까 금방 손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빠니까 나왔습니다. 이걸 뭘 뜻하느냐? 지금 모세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자 하는 분이, 이러이런 능력으로 너와 같이해 줄 테니까 겁내지 말고 가라, 하는 뜻입니다.

기적이라는 건 구원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걸 다들 착각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구원이 같이 따라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장사가 약 팔기 전에 도술을 부리고 검도를 하는 건 병 낫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약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다니신다고 그걸 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나사로 살렸다고 다른 사람까지 살립니까? 구원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분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데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느니라.”(요6:54)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기적을 행했다, 마귀가 도망갔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것들은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신처럼 위대한 기적을 행한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목표를 달성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홍해를 갈랐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행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과의 전쟁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창15:16) 이미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알

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출23:23)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민족을 다 멸망시키고, 바알 신을 섬기던 곳에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신12:2-3)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기적이 많았다, 만나가 내렸다, 어쨌다, 이견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앞으로 있을 영적인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계16:16) 이스라엘은 영의 세계에서 있을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그림자이고, 가나안은 마귀 군대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적,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Part 03.

멜기세덱의 제사장



13. 임마누엘의 제사와 제사 제도의 변경 · 14.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 ·
15.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 16. 부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 · 17.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 · 18. 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
수님 · 19. 멜기세덱의 제사장, 예수님 · 20.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
시는 예수님

Chapter 13.

임마누엘의 제사와 제사 제도의 변경

2000년 9월 10일, 27주년 기념예배 주일 저녁 설교 중에서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혈통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피는 곧 생명이다.’ 해서 피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요6:54) 우리 주님의 보혈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며, 무엇을 위해서 주의 피를 마시게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혼합되는 데 있습니다. 마리아라 하는, 육을 가지고 있는 동정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연결,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작품은 육체에 영이 거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과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실 적에, 성서에 기록된 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체를 하나님이 거두실 적에 하나님의 것인 생기를 가져가시면 흙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흙에서 취한 고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겁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인, 흙이 아닌 사람을 택하셔서 그곳에 생기보다 더 큰 은총을 함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명체를 성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사 7:14)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마1:23)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연결되려면 임마누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고, 인간의 육이 신과 연결이 되려고 해도 역시 임마누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신과 인간 사이를 중보 역할 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죄짓기 전의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견주면 임마누엘의 존재 가치가 월등한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렇게 월등하게 다르신 분께서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이 찢기시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

다는 건 다 아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새 언약의 그림자로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10:1)** “강도짓을 한 사람은 용서받기 위해서 요령요리한 짐승의 피로써 제사를 지내라. 또한 살인한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요령요리한 짐승의 피로써 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나는 그 제사를 받고서 그 사람의 허물을 사해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흠에서 빛은 생명체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빛은 생명체를 속건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해서 모든 죄악을 송두리째 그 제사로 사해 주도록 새로운 제사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사53:10)**

그렇다면 이러한 온전한 제물의 제사가 있을 때는 여태까지 있었던 불완전한 제사 제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 제사 제도의 원리를 마무리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전 장막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찢어 버리셨습니다. **(마27:51)**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전 휘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고 하는데, 주의 보혈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기에 이것을 먹어야 영생의 조건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먹어야 한다면 제자들이 육적

으로 먹는 줄 알고, 이해를 못해서 어리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한 설교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한 말은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라. 영에 대한 얘기니라. 육은 무익하니라.”(요6:63) 그래 봤자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그 내용을 모르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 줄로 압니다. 피를 받는 조건을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피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레17:11) 우리 주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실 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셨습니다. 짐승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죄를 씻을 수 있는 생수가 만들어졌습니다.(속13:1, 12:10)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의 산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시대 동물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한 것입니다.(히10:14)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 이후에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는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변경되었습니다.(히7:11)

Chapter 14.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

2007년 12월 16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나타낸 장면들은 육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 두 분야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차원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의 움직임을 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영의 역사를 만나게 됨으로써 다소나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점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와 더불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누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동기를 설명하고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증거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브

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한 육적인 아버지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 의도를 엿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면의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네 식구들을 통해서 내 맘에 드는 백성을 만들겠다.” (창6:17-18)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실천을 하셨습니다.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 (창6:6) 하시면서 후회도 하시고, 비참하게 죽는 꼴을 보고는 “다시는 내가 물로 멸하지 않겠다.” (창9:11)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의 자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겠다.” (출32:10)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길렀는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없애 버리고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얼 하시고자 그러시는가? 이걸 인간들은 몰랐습니다.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는 아무 계획

이 없는 겁니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외로 뭘 투자해서 돈이나 좀 더 벌려고 계획을 세울 때는 남을 시켜 가볍게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중차대한 일이라면 남을 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다 할 때는 그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이걸 전 인류에게 해당하는 애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왔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뭐 선지자 누구다 하고 다 중요시하지만, 그 모든 인물들이 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웠다.”(요5:39)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왔으니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다 끝났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까지, 즉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지상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온 겁니다. 하늘에서는 별 것 아닌데, 지상에서는 긴 세월이 흘러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강령과 율법과 원리는 세례 요한 때로 끝났다.” (눅16:16)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 그 다음 일은 새롭게 펼쳐진다.’ 그 뜻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개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림 보시듯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정하신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 의도하셨던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의도하셨던 게 뭐냐?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이 주님을 불러 가지고 40주야 동안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알려 주신 겁니다. 그전에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제 하나님 이 의도적으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멀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26:39)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요19:30)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

도대로 다 이루었다, 순종했다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백성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참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거쳐 결국 애굽을 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요셉에 의해 애굽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모세 때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앞의 일은 뒤에 나타날 일들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등장을 하시게 될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일들의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가서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하나 지시하심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할 겁니다.

Chapter 15.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1978년 11월 16일, 5주년 기념예배 목요일 저녁 설교 중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적에 피 없이는 속죄함이 없었습니다.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그 양의 피만큼 인간의 더럽고 누추한 죄가 씻기는 것에 제사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물 자체가 온전치 못한 고로 인간들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히7:11)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놓기 위하여 당신이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이루는 존재로, 이 땅에 인간의 형태를 입고 오신 겁니다. 죄악에 빠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와 같은 자격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요, 물 위로 걸어 다니시는 것도 아니요,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러 오셨는데, 여호와와는 그에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철들 무렵부터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끝내는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그것으로 인하여 못 생명들이 다시 사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동안에도 죽음이라는 두 글자로 인해 그의 뇌리 속에는 항상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은 일평생을 우울하게 보내셨습니다. 겉으로 볼 적엔 멀쩡한 사람이요, 남들과 똑같은 대화를 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생각이 그의 뇌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을 겉으로 볼 적에, 그가 세상의 수많은 죄악을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의 소유자인 것을 알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의 표정에서나 그의 행동에서 실질적으로 죽음과 싸울 때 전율을 느끼는 광경을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설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앞 바다에서 지극히 적은 무리를 놓고 조금씩 동태를 살피면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하나하나를 자기의 심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하늘의 섭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주님의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명성이 알려지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것과 같은 뜻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갈릴리 변두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상대로 하여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할 때면 바로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잘 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좋아했지만, 주님 자신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깊은 심정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은 의기양양하여, 균중심리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을 베풀어서 나귀에 엮었습니다.

주님은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기 위하여, 원치 않는 길이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뒤돌아서서 혼자였을 때는 죽음과 싸우느라고 하

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마음을 저울질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남기고, 그는 죽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만 제자들이 동요하지 않을 것인가, 자기를 바라보고 3년 동안 쫓았던 그 사고방식과 정반대인 내용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해야 실족시키지 않고, 주님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님을 지지하며 따르게 할까를 연구했지만,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주님은 특별히 죽음을 며칠 앞둔 때에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택하여 그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합니다.(눅9:28)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앞으로 죽음을 맞이할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간구를 마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고로, 그 순간 비몽사몽간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기회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변화하신 장면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은 엘리야의 모습으로, 한 사람은 모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님을 시중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눅9:30)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왔지만, 막상 예수가 모세보다 크다고 인정하기 힘들었고, 예수가 엘리야보다도 크다고 믿기 어려웠는데, 주님은 비몽사몽간에 그 세 제자들에게 모세나 엘리야

가 주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면 구약 시대에 가장 대표되는 인물들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세 제자들이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시중드는 정도에 불과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은 자기들이 섬겨 온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를 훨씬 능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려오면서 주님 앞에 미안한 고로, 최초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적에는 그전에 길 예비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왜 안 왔습니까?” (마17:10)

그때서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왔었노라. 그러나 못 사람들이 임의로 대하여 죽여 버렸다.” 이때야 비로소 세 제자들은, 바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마17:13)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인정을 받아서 움직인 것으로 알면 오산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깊은 신앙심이 우리나라 완전히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까지는 너무나도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인간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보면 신 같기도 하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제자들까지도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한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

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인자를 만나서 실족하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다.”(마 11:6, 18:7)

주님은 설교를 통해 당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주는 떡을 광야에서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들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요, 아들이 그 속에 없는 자는 영원토록 멸망할 것이다.”(요6:53-58)

주님은 당신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바로 자기가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까지도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멍해서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을 때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섭섭하신 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요6:67)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언자들이 말씀한 대로, 목자를 칠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흩어져서, 외롭지만 혼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마음에 각오하시고 죽음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역시 주님은 본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떡을 주시며 “너희들이 바로 이 떡을 먹듯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마26:26) 포도주를 따

라서 제자들에게 한 잔씩 주면서 “너희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듯이 내 피를 마셔야 산다.”(마26:2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음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그냥 얘기해 봤자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떡과 포도주로 설명하시며 먹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하루 앞에 놓고, 그날 저녁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당신이 외롭고 고독하면 혼자 가시던 장소에 동행한 것입니다. 이때 열두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는 주님을 팔고자 나갔고, 열한 제자만 함께 갔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목시 떨어뜨리는 그런 증거를 남겨 두지 않고자 제자들을 저 밑에다 둔 겁니다. 주님은 몇 발짝 더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주님은 설움이 복받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녔어도 역시 계산을 하고 보는 고로, 주님은 그네들 심령이 약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고로 주님은 혼자서 바위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적에, 외롭고 고독하여 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33살 인생을 사는 동안 죽음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살아왔지만, 막상 죽음이 다음 날 닥칠 것을 내다보시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피할 마음이 앞섰던 고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잔을 멀리해 주옵소서.”(마26:39)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다가, 주님의 행동이 위태로운 고로, 급히 천사를 시켜서 주님에게 힘을 주시니, 주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떨다가 다시 죽음과 싸울 각오가 생긴 것입니다.(눅22:43) 그리고 다시 기도하십니다. 다시 기도하다가 중단하시고 다시 한 번 예루살렘성을 내려다보십니다.

지금 같으면 전깃불이 있어서 화려하지만, 그때에는 어두운 가운데 예루살렘 성 문턱만 햇불이 쬐어 있었습니다. 멀리 불꽃을 바라보시던 주님은 내일 날이 밝으면 처참하게 당하실 것을 내다보시다가 다시 제자들한테 내려와서 바라보니, 제자들은 다 잠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자 하나 몸이 약하여 쓰러져 자는구나.” 주님은 한 바퀴 도신 후에 다시 또 기도하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적에 두 번째 기도야말로 피나는 기도였습니다. 한 2, 30분을 싸우고 몸부림치는 기도야말로 주님께서는 사생결단을 내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 지면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도에서 주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을 보기가 민망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고 답답한 심정을, 전율과 공포를 느끼시던 주님입니다. 당신이 기도로서 그 고비를 넘기고 죽음을 각오하는 순간, 마음이 태평해졌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이상 중에 저에게 보여주신 고로 제가 봤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맞이할 각오와 채비를 하고 계실 적에, 먼발치에

서 불빛이 비치면서 가룣 유다가 선두에 서서 무리가 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키스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붙들려 가는 순간부터는 아무 저항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보신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러 갈 적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털 깎이는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붙어서 빌라도 앞이나 누구 앞에 가서 힐문을 당할 때에도 일체 답변을 말라는 예언자들의 지시가 있는 고로, 주님은 끌려가시면서도 일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제일 고통스럽게 창피를 준 자가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이 가야바는 여러분들도 이다음에 영의 세계에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야바가 심문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을 때에도, 빌라도 총독하고 주님 사이에는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이 빌라도 뜰에서 얻어터지고 매 맞고 또 다시 끌려갈 적에는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와 같은 심리적 고통은 겪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고, 그 고비를 넘긴 고로, 채찍이 오고 말할 수 없이 주먹세례가 날아와도 주님은 그네들에게 노하지 않았습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부터 힘을 받은 주님은 죽음을

맞이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이상히 봤습니다. 채찍으로 그를 시험해 봐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보통 죄수들은 자기 죄를 변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고로, 일체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상히 여겨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특별하게 잘못된 것 같지 않다.” 하고 놓아 주려 해도 “저가 참람된 말을 한 고로 죽이소서.” 각본에 짠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제사장들이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다 돈 주고 매수해 놓았습니다.

손이 앞으로 묶이시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돌맹이가 날아오는데, 이미 이 돌맹이질하는 것들에게 제사장들이 전부 돈을 먹였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붙들리면 돌맹이질을 해라. 그래야 빌라도가 놓아 주려 해도 군중 심리에 놓아 주지 못할 것이다.” 각본을 다 짜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상 중에 볼 때 그런 장면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을 치고 박는 그 장면들을 제가 이상 중에 보다가 저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고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주님의 묶인 손을 잡고 “이토록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잠자코 참고 계십니까?” 제가 그 말을 할 때에, 그 묶인 손을 들어 내 머리에 얹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 봐 뒤라. 내가 이렇게 당했노라. 때가 오면 네가 이것을 증거해라.” 이상 중에 주님이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고통이나 번민을 당하면서도 일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찡그린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하신

얼굴도 아니고, 그야말로 누구도 그 표정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태도를 주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면서도 그만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때도 살펴보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철없는 부녀자들은 덮어놓고 슬퍼서 울고불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렇게 당하나, 행동을 살핍니다. 그걸 모르는 주님이 아니지만, 모른 척합니다.

갈보리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이미 그때 지쳤습니다. 정신은 똑똑했지만, 육신이 쇠약한 고로 지쳐서 쓰러질 정도입니다. 오래전부터 죽음을 준비하여 음식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을 적에도 로마 군병들이 세 군데로 나눠져서, 이쪽 손에 두 명, 저쪽 손에도 두 명, 발에 못 박는데도 두 명, 여섯 명이 갈라서서, 나무를 눕혀 놓고 주님의 팔을 벌리고 다리를 묶어서 못을 박고 세웠습니다.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장면은 못 박을 때입니다. 여태까지 침묵을 지켰던 주님인데 그 순간만은 참지 못해서 신음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귀를 막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마취제를 쓴 것도 아니고, 굶은 못으로 들이칠 때 뼈가 부서져 들어가니까 지쳤던 주님도 거기서 신음 소리를 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 없어도 주님의 친척이나 측근들은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를 직접 듣고는, 처참하니까 듣다가 돌아서서 치마를 걷어서 우

는 여인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 돌아가신 후에, 몇몇 사람이 모여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주님의 시체를 거두어들였는데, 그 거두어들이는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대단히 늙어 보였습니다. 피가 다 빠져나간 고로, 얼굴에 뼈와 가죽만 남아서 핏색하고, 아침에 빌라도 뜰에 섰을 때와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피가 다 빠져 버린 겁니다. 그 주님을 들어다가 싸서 무덤에 갖다 놓았습니다. 시신을 정리할 때 십자가 밑에 앉혀 놓아 십자가에 기대서 고개를 옆으로 기댄 핏색한 얼굴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후 부활하신 얼굴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돌아가실 때는 마치 40대가 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부활하신 후 영광의 주님은 27~28세 정도의 모습입니다. 얼굴형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던 그때의 예수님을 볼 때에, 당시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그의 움직임을 볼 때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같이 보고, 하나님과 교류되는 속을 가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의 일거일동을 트집잡으려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의 깊은 사정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한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을 당하는 주님의 발자취를 부족한 저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제가 이 역사를 끌어가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할 때 나타나셔서 그 말씀주시는 겁니

다. “전에 내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네가 이 정도 어려움을 못 참느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고, 또 다시 기를 쓰고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이 실질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보배로운 피로써 산 제사 드린 게 여호와께 영광스러운 제사가 된 고로, 그 제사로 인해 하늘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진 겁니다.(속13:1) 이것을 연결 받는 사람의 피가 주님의 피와 같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케 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도 그겁니다. “너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를 내 피로 정결케 씻었노라.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 이제 내가 너를 불담으로 지킬 것인즉, 악의 세력이 다시는 침투하지 못할 것이요, 너를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신 다음 다시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 역사를 끌어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이영수가 개인으로 움직여 온 것 같지만, 이영수와 교류하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오늘날 이 역사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오늘날 제가 축복하면 죄가 씻겨 나가고,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아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담겨지는 연고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 생수의 은혜는 주님 생존 시에 없었던 은혜입니다.(계21:6-7) 주의 피권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을 지킬 적에 핵심을 어디에 두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온다면 헛된 겁니다.

Chapter 16.

부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

1987년 4월 19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자신들도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시간에도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해마다 전하는 말씀이지만,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나마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증을 한다 해서 부활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혹은 뭐 닷새 만에 살아났다, 관 속에서 나왔다, 등등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 집사다, 부활 목사다, 그러한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성서의 말씀과 같이, ‘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고전15:53)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다시 죽는다면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썩을 것이 썩을 상태로 다시 살면 부활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이비다. 이단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는 차원을 얘길 하니, 보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틀렸다 하여 이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성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소리에 홀연히 변화된다.”(고전15:51)고 했습니다. 잠잔다 하는 바울의 얘기는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체들이 죽은 상태에서 마지막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변화되는 상태가 어떤가 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엔 어린 아이고, 열한 살 때엔 소년이고, 이십 세가 넘었을 땐 청년이고, 삼십 세가 넘으시면 중년입니다. 이렇게 삼십삼 세에 처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셨다가 그 상태로 다시 사셨으면 지금은 몇 살이 되어야 하느냐? 이천 세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목회자분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걸 반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제 말을 따져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혹시 갑자기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다 이틀 만에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살아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삽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죽기 전과 똑같은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찌르면 아프고, 때리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난 인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신 분 같으면 지금쯤 나이가 이천 살이 되고, 백발도 보통 백발이 아닐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의 진가를 모르는 겁니다.

사흘 전에 옆에서 마지막으로 섬기던 막달라 마리아가 사흘 지나서, 주님을 동틀 무렵에 만났어도 주님을 몰라봤습니다.(요20:15) 사흘 전까지 섬겼던 분인데,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주님인 걸 몰랐다면, 그 모습이 돌아가실 때 모습입니까? 변한 모습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엠마오의 두 청년이 시골에서 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고, 불철주야 주님만을 쫓아다니다가 주님이 죽었다 하여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분을 주님인줄 몰랐습니다.(눅24:16) 며칠 전에 본 주님을 두 청년이 눈이 잘못되어서 못 알아보았겠습니까? 보고도 몰랐습니다. 모습이 달

라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제자들이 문을 잠가 놓으면 노크를 하시고, “문을 열어라!” 하고 들어오시던 분이, 붙들려 갈까 봐 무서워서 문을 잠가 놓고 숨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문도 열지 않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우뚝 서시는 분이라면, (눅24:36) 사흘 전 주님과 지금 나타난 주님이 같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은 오장육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체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는 무익하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요6:63, 고전15:50 참고) 그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나라로 가셔야 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면 하늘나라를 가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늙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늙는 그 육체가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썩을 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썩는다는 겁니다. 육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육의 조건을 가지고 오신 것은, 썩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썩지 아니할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썩을 조건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썩을 조건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썩을 조건을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을 위해서 썩을 조건을 가지고

오셨지만, 오시기 전의 주님은 하늘나라에 영으로 계시던 존재입니다. 그러던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변화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부활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요14:6) 하는 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요11:25-26) 이 건육의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더라도 구원을 받겠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가는 고로 생명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부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부활이 성서에 나타나게 된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육체적으로 왜 열한 번씩이나 나타냈는가를.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은 불리한 조건이라는 걸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즉시 놔줬으면 열 가지 재앙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을 죽이는 능력이 나타난 것도 백성들이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었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고전 10:8) 능력을 나타내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죽이는 게 뭐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와서 시험을 할 때에, 일반인들이 그런다면 별것 아니게 여기겠지만, 안다는 것들이 꼬투리 잡으러 온 고로 주님이 아니꼬

읽서, “이 시대가 악한 고로 기적을 요구한다.”(마12:39), 악질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대가 악한 고로 주님도 기적을 나타내시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요구하나, 이 시대에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마12:39)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자신도 부활의 의미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빌라도한테 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빌라도 총독이여, 평상시 예수가 말하기를, 사흘 만에 다시 산다고 해서 시체를 어디다 옮겨 놓고 부활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다고 해서 더 날뿔 거니, 시체를 흠쳐 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병정들을 파병해 주십시오.” 해서 병정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사흘 되는 새벽,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정들이 그걸 보고 그 눈부시고 화려한 기적에 쓰러졌습니다. 그 새벽에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부활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기절한 로마병정들이 제사장들에게 갔을 때, 제사장들이 “예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 “아, 어제 밤에 갑자기 빛이 나타나 난리가 난

다음에, 어찌고….” 이렇게 얘길 하니까,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진짜냐, 그게?”, “예.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구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면서, “너 이거 받아. 너 만약에 네가 보고 느낀 대로, 이상한 빛이 번쩍하고, 흰옷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따위 얘기 입 밖에 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그 대신에 이 돈 받고 가서 훔쳐 갔다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인하고,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 듭니다. 그게 진리여도 소용없는 겁니다. 꼬투리 잡는 자들한테는 지구를 반쪽으로 붙였다 떼다 해 봤자 안 통합니다. 지구를 반쪽으로 붙였다 떼다 하면 그 다음엔 뭘 요구하느냐? 해를 한번 붙였다 떼다 해 보라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인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오는 순간부터 주님이 생각이 달라지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올라가야겠구나.’ 이걸 느끼신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인즉, 갈릴리로 와라. 무덤으로 오지 마라.”(마26:32) 사전에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질 않으니까, 시체가 무덤 속에 있는 줄 아는데, 갈릴리로 갑니까? 그러니 무덤으로만 찾아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갈릴리로 가 있었다면 주님이 열한 번이나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갈릴리로 모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여기 있다.” 했으면, 무덤 속에 있을 분이 거기 와 계시니까 분명히 다시 살았다는 증거가 즉시 되는 겁니다. 그랬다면 주님이 바로 승천하셨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얘길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했지 않았느냐?” (마28:7)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줘도 제자들이, “그럴 리가 있느냐?” 뭐 쑈군덕거리고, 봤다 해도 안 믿고, “그러면 가서 보자.” 하고 같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을 하고, 또다시 모여서 회의들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어찌고저찌고 말이 많고, 그중에 한 명이 “난 봐야 믿지, 안 보면 못 믿겠다.” 주절주절하니깐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떠드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뭐 먹을 것 없느냐?” 만져 봐야 된다 하니깐, “그래 만져 보라.” 만져 보게끔 해야 되니까 뼈와 살을 가지신 것으로 증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뼈와 살이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뼈와 살을 증거를 안 해 주시면 살았다는 증거가 안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하는 그 자체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아느냐면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당대에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몰랐는데,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성경을 보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는 내용을 아느냐? 모릅니다. 죽었다 그대로 살아난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성경에 그들이 본 것을 기록한 걸 보고서, 오늘날 머리가 벗겨진 박사들도 “야, 이렇게 육으로 사셨는데, 네가 뭐 헛소리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그런걸 아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 사태를 주님이 친히 저한테 자세하게 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니 제가 아는 겁니다. 그럼 트집 잡는 자들이 이 녹음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뭐 하나님과 대화한다면서? 그게 바로 사이비 아니냐?” 이럴 겁니다. 바로 옛날 주님을 처형한 게 이거 아닙니까? “네가 참람된 말을 한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아들이 아닌 존재가 “내가 아들이다.” 하면 사이비입니다. 그야말로 이단입니다. 아들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단입니까? 모든 게 영의 문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주님이 변화하셔서 부활하신 생명체는, 이 땅에 계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는 보잘 것이 없고 연한 순과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아니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계1:13-16)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주님을 속에 모심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이 될 때는 초라한 생명이 아니고, 새로운 영의 생명체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바뀌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신 고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나타나실 땐 그들이 몰랐다가, 나중에 주님의 옛 모습을 보여주자, ‘아이고 선생님!’ 하고 보니까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눅24:31)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디 한군데 ‘뼈와 살이 있다.’ 하니까 주님이 그대로 일어나셨다고 압니다. 하늘나라는 육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찌어질 생명이 찌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어져서 영생하는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Chapter 17.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

2008년 3월 2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영의 세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의 세계의 윤곽을 우리 주님도 다 말씀하시진 않았습
니다. 다만, “인자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요8:58) 하신 말씀과
“다윗이 주를 가리켜서 구주라고 칭했는데, 다윗이 먼저냐, 구주의 역할
을 하는 그 존재가 먼저냐?”(마22:45) 하는, 영적인 말씀을 표시한 구
절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명실상
부한 대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구세주는 다윗의 혈통 속에서 태어나도록
예언이 되어 있는데, 구세주라고 자칭하는 그 존재가 다윗보다 먼

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논하려면 우선 우리 주님의 존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존재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드님을 인간들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곁에 계셨던 존재, 둘째, 이 땅에 육으로 오셨던 주님, 셋째, 부활하고 나신 다음의 주님,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를 생각하십시오.”(요17:5) 그 기도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의 세계에서, 인간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요1:1, 창1:26, 잠8:23)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아는 겁니다.

지금은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시에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이 그때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를 최고로 여겨 존경하므로, 주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보다도 사실은 내가 먼저 있었다.” 하신 것

은 다분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 50도 못된 놈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 말이 되느냐?” 해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권능으로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나타나 있습니다.(요8:56-59)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참 귀하게 여기고 모세의 존재도 귀하게 여기는 한편, 다윗도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들은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에 의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조상으로 다윗을 정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에게 그 당시의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다윗의 글을 읽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세주하고 다윗하고 누가 먼저냐? 대답을 해 보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이유인즉 “어떻게 다윗이 먼저라면, 그 구세주에 대해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런 말을 하겠느냐?” ‘주께서’는 하나님이고 ‘내 주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뜻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먼저 있지 않았다면 “내가 그 존재로 인해 음부에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행2:27)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논하려면 순서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로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에 대한 것만 알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구세주하고, 변화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의 구세주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에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에덴동산에 계셨던 주님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에덴동산에 있었습니다. 이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시는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사7:14) 그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을 이루는 존재다, 그 말씀입니다.(마1:23)

만약 우리가 에덴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영의 세계에 가더라도 에덴동산과 같은 조건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하나님의 세계는 못 갑니다. 왜냐?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하는 때가 온다.”(계21:3) 그렇다면, 어떤 생명체들이 구속을 얻어서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다면,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면, 옛날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은 가치를 얻지 못한 겁니까? 그러한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의 인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를 보내신 겁니다. 아담과 같은 존재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왜 천국에 가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렇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영의 세계에 대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 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전15:42-44)

또 보겠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전15:50)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 하면서 기록한 구절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느냐 하면,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난다, 그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기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어떻게 등용이 되는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는 바울도 모릅니다. 그 시대에 알 일이 아니니 때문입니다.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 곁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체가 된다면, 옛날 범죄하기 전 아담, 하와보다 급수가 앞섭니까?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

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생긴 지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믿어 왔고 현재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지시하신 여호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내 나라로, 내 곁으로 오게 되리라.” 이게 아무 때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축복입니다.

Chapter 18.

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

2007년 2월 18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기독교가 흘러내려 온 역사를 보면, 천국에 간다는 희망 속에서, 이미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들이 ‘예비해 두셨다’ 하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로 주님이 가신다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길 했더니 주님 말씀이, “지금은 너희들이 올 수가 없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야 너희들이 올 수 있다.”(요14:3)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도, 하늘나라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가지

못한다는 뜻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내가 예비한 다음에 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 자신이 아버지의 깊은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도 없지 않았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히,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하신 말씀들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시인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도 오늘날 주님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시정하실 필요가 있어서, 서둘러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죽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마16:28) 그러나 이미 이천 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오직 당시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길만 가신 거지, 그 밖의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시행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 한계 안에서의 일 외에는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내용을 모르셨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그런 분야를, 아드님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

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일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움직이신 겁니다. 주님도 그걸 시인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요6:38-39)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로 가실 때까지의 윤곽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움직이시면 ‘성경을 입증시키려고 한 것이다’(요13:18)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무슨 말씀 하실 때에 “때가 아니니라.”, “지금 때가 됐느니라.”, 이렇게 모든 정해진 것을 시인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마 26:18)

그렇다면 각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실 모든 길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세론을 논할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야 한다.” 하고 모든 뜻을 마지막으로 미루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는 이런 거다, 하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니 기독교에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의 종지부를 알 길이 있느냐?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최고의 권위자신데, 그분이 모르시는 내용을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가셔서, 누차 말씀드리는 대로 안과 밖으로 일곱 인으로 봉한 비밀의 책, 하늘 아버지가 정하신 경륜이 담긴 책을 떼고 이루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등용이 됩니다.(계5:9)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윗의 뿌리가 이졌다.’, 즉 승리했기 때문입니다.(계5:5) 그것을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시110:4, 히6:20)

그의 권한이 뭐냐? 하나님의 권한을 이어받는 겁니다.(시2:8) 하나님의 권한을 이어받으신 주님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비밀로 하신 내용, 이 땅에 계실 적에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하신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시게 되니까, 지상에 계시면서 모르셨을 때 설교하셨던 내용들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시켜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감람나무입니다.(슌4:12-14, 계11:3-4)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예언하는 그 시점에 두 감람나무라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존재가 나타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슌4:14) 그리고 ‘메시아가 이러저러한 걸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두 감람나무는 이어서 이런저런 일을 연결시켜서 하게 된다.’ 하며, 서로 연관되도록 예언

을 주시면서, 감춰 두셨던 겁니다.(속3:9, 6:13)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전혀 모르셨던 내용입니다. 감람나무가 뭐하는 인물인지, 주님도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가서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뜻을 아시게 되므로, 그때 비로소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고 비밀로 정하신 걸 아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은 감람나무를 당신의 증거자로 삼겠다고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겁니다.(계11:3-4) 그래서 감람나무로 쓰이기 위해, 이기는 자가 나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계2:7 등)

그러니 이긴자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써 갈 길을 가면서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을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보완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됩니다.(계2:17, 11:3) 그래서 그런 모든 것, 소위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4복음서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행적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기 전,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들은 주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신 다음에 주의 종에게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흰 돌의 말씀’(계2:17)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 위에 새로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받는 자밖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건 다 흥내를 내도, 이긴자라는 존재가 가진 흰 돌 위에 쓴 내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원리와 주님의 깊은 사정을 여러분들이 비로소 저를 통해 듣게 되는 겁니다. 2천 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의 근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날 이긴자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한테 설명을 듣고, 오늘날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겁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잘 믿는 사람이다.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 보라 이겁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면 왜 자신들은 모릅니까? 누구나 될 수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면서도 ‘이긴자는 특정인이 아니다. 누구나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얘깁니다. 이긴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세상에 존경받는 목회자들도 육으로 계셨던 주님의 말씀을 소개할지라도, 지금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만나 보기를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듣기를 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할 때,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을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10:23, 마16:28) 그러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의적으로 그러신 건 아닙니다. 이걸 주님이 그 당시 아시는 상식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을 모르시는 분인데,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힘쓰는 자가 뺏는다.”(마11:12)고 했습니다. 또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마7:13)라고 했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입에 단 걸 좋아하지, 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리가 그저 편한 쪽으로 나가서 숫자를 많이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100만이 되면 뭘 하고, 100억이 되면 뭐합니까?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만 백적지근하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 저 자신부터가 이긴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님도 뵈게 됐고, 영의 세계를 많이 보여주셔서 알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셨겠습니까? 누군 뭐, 보여달라고 안 해서 안 보여주십니까?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을 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을 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40억 인구 중에 너를 택했노라. 이 시대가 너를 거치지 않으면 내 나라로 들어올 자가 없다. 그 이유는 내 섭리가 너

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청량리에서 단을 지킬 때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것은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셨고, 제가 핍박 받을 때도 여호와께서 “너를 조롱하는 자는 나를 조롱하는 것이니라. 그것은 바로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뭐 제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알곡성전을 지으며 그 해에 지붕만 덮어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알곡성전 내부까지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내 성전을 짓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를 존귀케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하고 사양했지만, 오늘날까지 여러 면에서 저를 존귀케 해 주시길 느낍니다. 저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사양은 했는데도,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해 주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Chapter 19.

멜기세덱의 제사장, 예수님

2005년 10월 3일, 32주년 기념예배 월요일 저녁 설교 중에서



히브리서에는 나사렛 예수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나사렛 예수가 아브라함보다도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다윗이 예언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에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북부를 지배하던 그돌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함께 남부에 있는 성들을 침략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하고 급히 떠났습니다. 그때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수하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공격하여 모든 사람과 물품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포함한 남부의 왕들이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

텍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떡은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내 피다.’ 하시며 상징적으로 쓰신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받았습니니다.(창14:18-20)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십일조를 바친 것 아닙니까?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분명히 큰 인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히7:4, 17)

그럼 나사렛 예수가 멜기세덱이 된다는 증거가 성서적으로 있느냐? 있습니다.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와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시110:4)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바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의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끌어들이는데, 자기 스스로 말하면 히브리 민족들, 아브라함 자손들이 안 믿어 주니까, 다윗의 예언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 할 겁니다.”(히5:11) 하는 단서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나 끝 날의 멜기세덱이 해야 하는 일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느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얘기를 건들다 만 겁니다.

그런 멜기세덱의 원리를 마무리 짓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광경을 창세 이후로 최초로 밝히는 게 우리 역사입니다.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배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또 그들이 등장하게 될 연회장을 현실에서 모형으로나마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인 천국연회장을 짓는다 하니까 듣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놀라운 얘깁니다. 역대 하나님의 종들이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제 직분이 감람나무요, 이긴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에게 장래에 이루어질 천국연회장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곳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이 들어가 상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께서 축복해 주신 알곡성전에,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영원한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천국연회장의 모형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과거에 보여주시긴 했어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할 적에, 이 시대에 H빔과 기타 좋은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어라 하고 이상 중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 골격대로 앞으로 엄청난 건축을, 허가만 나면 제가 이 산 위에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될 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격자들, 다시 말해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만 여호와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 말씀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히6:20, 계20:4-6, 21:22-27) 그 숫자를 성경은 14만 4천으로 정한 고로, “시온 산에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섰는데, 하늘나라의 노래를 14만 4천인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계14:1-3) 이것이 바로 성서의 원리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베푸는 곳이 바로 천국연회장입니다.(계19:7) 이것을 오늘날, 보여주신 대로 흉내 내서, 조그맣게나마 건축을 해서 보여주겠다는 게 우리 역사입니다. 아무리 교만한 인간들도 이것이 만들어진 후, 설명을 듣고 알게 되면 아연실색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지상의 건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될 영의 세계에 있게 될 것인데, 일반인들이 거하는 건축물도 아닙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각 국가와 족속을 통해서, 순교를 당함으로 만들어지는 하나 하나의 생명체들이 14만 4천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마귀를 멸망시킨 후 주님과 더불어 혼례식을 하는 곳이 천국의 연회장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만큼은 지상의 건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보게 될 건축물의 모형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는 또 하나의 제사장을 다윗이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만 태어나는 겁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첫 대제사장입니다. 대대손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았는데, 히브리서는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

냐?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얹혀 주시겠다 약속한 것은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성도들을 말합니다.(히6:19-20, 계20:4-6) 성도들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세마포입니다.(계19:8)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자들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시110:3) 찬란한 빛이 납니다.

그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릅니다.(계19:14) 하늘의 군대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전쟁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 군대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14만 4천은 높고먹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가 아니면 짐승에게 누구나 경배하게 됩니다.(계13:8) 그러므로 그 이마와 그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코 주의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계20:4)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는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이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찍힌 자들은 짐승의 편이 됩니다.(계14:1, 13:16) 그것이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양상이 펼쳐지는 장면들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영의 얘기를 인간들이 연구하고 서적을 참고한다고 알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이 시간, 시간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낼 적에, 실질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가다가 막혀 버리고, 중구난방으로 말씀이 나온다면 제가 가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가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겁니다. 앞과 뒤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Chapter 20.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2005년 10월 23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요즘 주의 종이 하늘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가면서 천국이란 것이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온 산에 어린 양과 더불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계14:1) 이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비유로 그가 잘 알고 있는 시온 산을 보여주신 겁니다. 시온 산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영의 세계를 나타냅니다.(미4:7) 여기서 14만 4천은 무엇을 하는 숫자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 계시록에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그

러나 깊은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전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사110:1) 다윗이 여호와께로부터 보여주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태어나기도 전의 인물을 다윗에게 예언하실 적에, 그에게 원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시는데, 언제까지나 하면,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의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는 여호와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걸 또 누가 증거했느냐? 스테반이 증거를 했습니다. 스테반이 “보라, 내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행7:55) 하고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자리를 성서에 서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사110:4) 하고 다윗이 말한 겁니다.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원수라면 막상막하의 세력을 말합니다. 막상막하의 세력이 발등상 될 때까지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예

수님께서는 불가불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 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고전15:25)

여호와께서 주께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시적으로 왕 노릇을 하라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 여호와와 모든 권세는 나사렛 예수가 하늘나라에 가서 차지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차지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원수, 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만 왕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한 여호와와 아드님이신데, 원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수를 마귀라고 했습니다.(마13:39)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요일3:8) 우리 주님이 현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행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마귀가 발등상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마귀가 발등상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행한 대로 천국도 지옥도 있게 되고, 상도 벌도 받게 되는데, 마귀가 발등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천국이다, 지옥이다 하는 이런 원리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Part 04.

감람나무



21. 야곱과 영적 야곱 · 22. 이긴자의 그림자, 야곱 · 23. 이기는 자를 요구
하심 · 24. 생수의 유업 · 25. 이긴자의 할 일 · 26. 감람나무의 그림자, 대
제사장 여호수아 · 27. 스투바벨과 감람나무 · 28.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
리라 · 29. 알곡과 이한 낫

Chapter 21.

야곱과 영적 야곱

2002년 9월 20일, 29주년 기념예배 금요일 저녁 설교 중에서



영의 세계를 막연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실제로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하여 주는 자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않고 어찌 믿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롬10:14-15)

오늘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관한 얘기를 그림 보듯 듣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피부로 느낀 바다 하며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난 사실을 입증하듯이, (요일1:1) 오늘날 주의 종이 영의 세계에 대해 일찍이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터득하고 나와 여러분

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연고로, 여러분들은 바로 영화 보듯이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소개하는 것하고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는 것은 바로 성서에 기록된 것을 보다 분명하게, 그 시대에 예언하는 당사자들조차 몰랐던 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보충을 해 가며 그림을 보여주듯이 펼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인물의 하나님으로 불리기까지, 여호와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에 그러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역할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사실상 끝이 났지만, 그 성경 말씀 가운데에 주님 이후에 되는 장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모르셨던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만 알고 계셨던 거지, 그 나머지 일까지 주님이 아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 얘기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연결된 이야기인 고로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장가가서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근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일평생 이렇게 함께하셨다. 그 이유는 바로 내 후손들을 만들어 내고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아무하고나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지적해 주는 짝과 결혼을 하도록 해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이삭으로 하여금 결혼을 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일평생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이삭은, 장가를 가면 자신이 자식들을 많이 낳을 줄 알았는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장가가자마자 내 아내가 아기를 순산해서 후손들을 많이 번식시킬 줄 알았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으니,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리이러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 내게 자식이 없는 가!’ 이렇게 항상 궁금히 여겼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겁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난산이 되거나 할 때는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꺼낸다거나 하지만, 옛날에는 아기가 잘못되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리브가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하나님께 여차저차로 말씀을 드린 후에 제가 임신을 했는데, 제 아기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뱃속이 요란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기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꿈 중에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리브가야! 걱정하지 마라. 네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느니라. 네 뱃속에 두 아기가 있어서 두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너는 몸조심을 해라.” 하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알라.”(창25:23)

잠을 깨고 나니까 꿈입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아기 아버지 되는 이삭하고 의논하는데, “내가 꿈을 꿔는데 이러저러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며, 이삭과 아내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에 먼저 나온 아이는 붉은 색을 띠고 털이 많다 해서 에서라 이름을 지었고,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창 25:25-26)

에서하고 야곱이란 인물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 엄마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그 어머니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랄 때부터 큰 자보다는 작은 자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에서는 힘이 장사입니다. 그는 사냥도 잘하고 야인으로서는 생

활을 하면서 자랐고, 야곱은 집안에서 엄마 일이나 돕고 가정적인 성품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눈에는 씩씩한 첫째 아들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사냥도 하고 “아버지!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하며 요리도 해서 내놓고, 통구이, 바비큐로 항상 대접을 하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놈은 영웅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알지만, 엄마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는 동생 야곱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야곱의 주위를 살피는 겁니다.

두 형제가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팔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창25:33) 그러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축복할 때가 왔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네가 짐승을 잡아오면 요리를 해서 잘 먹은 다음에 너한테 축복을 해 주마.”(창27:3-4)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각본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동생을 더 크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래선 안 되겠다.’ 해 가지고는 야곱을 부른 겁니다.

“야곱아! 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야곱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엄마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형의 흉내를 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내야 된다.”(창27:8-10) 그래서 고기를 준비해 주어 축복을 받아 내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엄마가 야곱 편을 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은 자에게 큰 자가 되게 꿈 하는 겁니다. 결국 그걸 다 따냅니다. 그로 인해서 동생은 말도 못하게 형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당해서 도망을 다니는 과정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두 민족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20년 동안 아기를 배지 못하던 이삭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일반 자식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각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야곱이 도망가서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 오빠한테로 가라고 했습니다. 야곱한테는 외삼촌이 됩니다. 지금같이 자가용 타고 가면 별것 아니지만, 옛날에는 순전히 걸어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멎니까? 야곱한테 이러한 시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작업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조건을 그렇게 갖춰 나가도록 각본을 짜신 겁니다. 장자로 태어났으면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상속이 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고 차남입니다. 차남인데 모든 조건을 갖기 위해서 형을 속였으니까 형이 가만두지 않고 죽이려고 하여 도망가도록 분위기가 짜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도망을 안 갑니다. 왜냐? 자기가 사는 곳에도 처녀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왜 도망갑니까? 낯선 곳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망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삼촌 집으로 가서 거하면서 삼촌 딸들하고 연애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야곱이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때는 별의별 것이 다 빚어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상관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일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삼촌 집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 장면을 겪습니다. 어느 날은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뜻하게 햇살에 비쳐서 저녁때면 돌이 따끈따끈합니다. 거기서 피곤하니까 그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아!” 하늘문이 열리면서 줄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거기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지상에도 왔다, 하늘로도 올라갔다 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이때에 야곱의 눈에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인 겁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제부터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

이 만들어지게 된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너를 지켜 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창28:13-15)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눈을 떴더니 꿈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듣던 여호와를 처음 만나 뵈는 겁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같이하셨던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베킨 돌을 일으켜 세우고, 받쳐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시고 지켜 주신다고 했으니, 저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면 저는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창28:20-22)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손을 많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알아차렸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야겠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삼촌이 잘 왔다 해서 그 집에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집에 딸이 둘 있는데, 그중에 둘째 딸이 예쁘니까 그 둘째 딸을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삼촌, 이 둘째 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밤에 언니를 들여보낸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영

똥한 여자가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삼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어떻게 돼!”

“아니, 제가 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옆에 왜 언니가 들어와 있습니까?”

“언니 놔두고 동생 먼저 시집보내는 수도 있냐?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가 언니를 먼저 준 거야.”

“아이고, 알았습니다.”

“동생을 데려가려면 7일 후에 줄 테니,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또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언니를 좋아했으면 언니하고만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 동생하고 눈이 맞게 됩니다. 그러나 언니가 먼저 들어와 아기를 낳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식을 많이 두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야곱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았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질투하여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 자식을 낳게 합니다. 빌하는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기에게 더 이상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실바도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레아가 두 명의 아들을 더 낳았고, 라헬도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너로 말미암아서 그게 이루어

진다.” 그러면 야곱이 자식을 많이 갖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만, 야곱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움직임은 자식을 많이 두게 되는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림자입니다. 야곱이란 인물이 바로 영적인 12지파를 완성시키는 인물의 그림자임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이삭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비교하고, 야곱을 영적으로 12지파를 형성하는 인물과 비교한다면, 이 야곱은 오늘날 와서 요한 계시록에 12지파를 만들기 위해 인치는 역사를 하는 영적 야곱, 즉 감람나무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계7:3-4, 11:3-4)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 야곱이 만들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늘 군병들에게 인치는 사명자는 바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해 뜨는 데에서 올라오는 인치는 사명을 맡은 천사와 함께 일하는 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계 7:3) ‘우리’라는 것은 이 천사와 이긴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긴자의 사명이 바로 하늘 군병의 나머지 수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할 천사들에게 주님께서 이긴자를 소개시키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계3:5) 구약의 역사는 실제 하나님의 섭

리의 그림자입니다.

Chapter 22.

이긴자의 그림자, 야곱

2002년 9월 21일, 29주년 기념예배 토요일 저녁 설교 중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해석하고 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고전2:13)는 성경 말씀처럼, 영의 문제는 자신이 영적으로 서기 전에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계시를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롬14:2-3)

오늘날 주의 종이 이 역사를 시작할 무렵에 여호와와 주님께서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는 모든 원리를 가르쳐 주셨지

만, “때가 되기 전에는 밝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는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납득하고 마음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이 세 인물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긴자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세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왔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이어받아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은 아브라함과 이삭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야곱 시대에 와서는 이제 수를 늘리는 일을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도망을 가는 이 원리도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여건을 조성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도망 다닌다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야곱도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삼촌 집에서 약 20여 년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자식을 낳게 됩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은 것은 앞으로 영적인 야곱, 즉 이긴자

가 해야 할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아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룬 것처럼, 이긴자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완성해야 할 사명을 받는 겁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거느리게 될 때,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끌어가야 하니까. 처음에는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사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재벌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삼촌은 별로 좋아하질 않았습다. 그래서 결국은 의가 상해서 다투고, 나중에는 야곱이 도망도 가게 되고, 또 피신하다 화해도 하고, 이런 파란만장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약대를 타고 가지만, 강이라도 만나면 강을 건너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자기의 움직임이 형 에서에게 알려지게 되면 와서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가족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그 야곱은 형에게 재물을 많이 실어서 보내어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과정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가는 길에 압복강을 만났습니다. 그 강은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인데,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밤에 하나하나 짐도 실어 보내고, 자식들을 다 보내고 야곱이 제일 늦게 건너려니까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야곱이 거기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비몽사몽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가족들은 다 건네 보냈는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정신적으로 형한테 쫓기고, 도적 떼한테 쫓기고, 식구들은 많은데, 사실 제가 고독하고 참 쓸쓸합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세력뿐인데,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바쁘다. 지금 내 갈 길을 가야 돼!”

“저에게 힘과 용기와 축복을 주셔야 저는 놓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축복을 안 해 주신다면, 힘과 용기를 안 주신다면,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날이 새기 전에 가야 돼!”

“못 놓습니다. 저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 사람이 비몽사몽간이지만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친 겁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통증을 느끼면서도 “죽어도 저는 못 놓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고 가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므로 네 이름을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32:28)

“그럼 댁은 누구십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밝히려고 하느냐?” 하며 축복을 하고 떠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이 이겨서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은 것은 이후에 이긴자가 나타날 것의 그림자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것처럼, 이긴자도 주님의 시험을 이겨야 이긴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식구들이 건너가서 아버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배가 야곱을 실으러 오는 사이에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배를 타려고 나무를 내려가는데, 분명히 비몽사몽간에 겪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넓적다리가 아픈 겁니다. 환도뼈를 친 그쪽이 아파서 절면서 내려갔습니다.

Chapter 23.

이기는 자를 요구하심

1989년 1월 15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성서는 우리 인간을 위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인간 위주로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도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주인공 되는 분과 연결을 갖기 위해서지, 세상적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하늘에서는 메시아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정할 때에 그 뜻이 베풀어지는 역사에 참여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중요한 갈림길
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존재를 깨달아서 믿는 사람은 그를 요긴한 머릿돌로 인정을 하겠지만, 아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메시아는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시118:22, 사28:16)

하늘에서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귀해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존재,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열왕들이나 수많은 백성들 전체가 메시아라는 존재 하나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에 불과한 겁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작업을 펼쳤다면,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주인공이 나타나기 직전까지의 모든 일들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볼 때에 이 점을 분명히 알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가 메시아가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실질적인 메시아로서의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대손손 메시아 나올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하고, 전체가 그것을 기다린다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왔는데도 그는 인정을 못 받았 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한 주인공으로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

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서 그가 가짜입니까? 사람들이 알고 모르는 차원을 떠나서, 그는 진짜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선지자들의 율법과 강령은 선지자 세례 요한 때로 모든 것이 끝나리라.”(눅16:16)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원리를 사실상 메시아가 나타나 마무리 지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상에 계실 동안,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요16:12)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면 그 보혜사가 내가 너희에게 못한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요16:13)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연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았습니다.(계5:7) 그 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를 온전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계11:3-4)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통보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

을 나는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일도 있고, 너희들이 이루어야 할 일도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서 이긴자가 나타나라.”(계2-3장)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훌륭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예수님이 오시므로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할 말을 다 못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기독교는 미완성품입니다. 구약에 대한 것은 주님이 폐지시켰고, 새로운 걸 다 발표하지도 못하고 올라가셨으니 실질적인 기독교는 미완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다 했어도 기독교가 온전하게 될까 말까인데, 하시고 싶은 말씀도 다 못하고 가신 게 분명한데, 어떻게 기독교가 완성품이 됩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가 완성품인 걸로 착각하고, 만사가 무조건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올라가면 바로 온다.”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마24:34) 이제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얻고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쥐시고 모든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 당신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는 차원 속에서 지시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긴자가 나와라’(계2:7 등) 하는 게 인간에게 던지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위치는 이 땅에 오시기 전도 아니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니고, 승리한 대가로 하나님을 대행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상태입니다. 이때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든가,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제 내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계1:18) 옛날엔 음부의 열쇠를 안 가지고 계시던 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고, 일곱 교회를 쥐고 있다 이겁니다.(계 1:20) 그리고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모든 권한이 내게 있다. 이제부터 내가 일러 주는 말을 너는 잘 기록해서 전달해라.”(계1:11) 이겁니다.

그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나와라.” 하신 겁니다.(계2:7 등)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은혜를 받고 모인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긴자가 나오라 했다는 말은, 불같은 성령을 받고 50여 개 초대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이 이긴자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실질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고 싶은 실질적인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이긴자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냉정히 따져서 기독교는 이천

년 동안 주님의 실질적인 요구를 알지 못하고 내려온 겁니다.

이긴자가 나오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게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부탁한 겁니다. 50여 개 교회 중에 일곱 교회를 택한 후에 그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주님이 다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충성하고 은혜 받은 후, 목숨을 버리고, 스데반이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다 봤다.”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 이제 너희들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내가 해 줘야 되겠는데, 그 필요한 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오면 이러 저러한 은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겁니다.(계 2:17, 21:6-7) 이긴자가 나오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고, 또 생수를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Chapter 24.

생수의 유업

2007년 10월 14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기독교가 이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를 요구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만 그리워하게 됩니다.(행2:1-4)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그런 기도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8) 그런데 주님은 이기는 자가 나와야 이것을 줄 수 있다고 알려 주셨습니다.(계21:6-7) 이것은 베드로도, 바울도 알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들이 죽은 후 수십 년 지나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떠난다 하는 말씀을 하실 적에 제자들이 “못 가십니다. 우리 곁에서 떠날 수 없으십니다.” 하고 붙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요16:7) 다시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내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올 수 없다.”(요13:36)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대한 것은 아예 기독교 신자들은 알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이천 년 동안 수억의 인구가 지나가면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바랐던 교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120문도가 받았던,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과 같은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지금까지 철야 금식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생수를 이름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약속이 나와 있어도 모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맡겨 주겠다.”(계21:6-7) 그런데도 그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쏟아져 나오는 유태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물을 준다.’(사55:1)는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성경에 기록한 것

처럼 여러분들이 그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요7:37-39) 이런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주님을 믿었던 믿음의 식구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수 샘물을 그때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다.’(요7:39)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만들어진다고 했고,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도 말만 들었지, 받을 수 없었던 성령의 은혜를, 십자가를 지고 나셨으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받아야 한다하는 이론조차도 제기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묻하고는 정반대되는 불을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시원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없었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그런 은혜가 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바로 그런 내용을 아느냐?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 나라에 가신 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나와라. 이기는 자가 나오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도록 그에게 생명수 샘물을 맡겨 주겠다.”(계 21:6-7)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긴자가 안 나오니 생명수 샘물이 무

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건지, 안 이루어지는 건지 알 길이 없으니까, 기독교에서는 생수에 대해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물을 가져와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으러 가는 사람이 예물 없이 갑니까? 뭐, 양을 가져와라, 소를 가져와라, 비둘기를 가져와라, 제물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수 샘물은 하늘에서 대가를 받으십니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이기는 자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는 자는 이긴자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 수백 명이 그 축복 속에서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그 영이 가 있는 겁니다.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도 순교를 당해야만 얻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값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계3:5) 이긴자가 움직일 때 천사들이 도와서 함께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긴자를 천사들 앞에 소개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억지로 지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귀하다는 것을 압니까?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Chapter 25.

이긴자의 할 일

2001년 6월 24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해야만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 제도를 주장할 수가 있듯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려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바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자들이 이러하다 하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확실하게 성서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계7:3)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인 맞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인은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과 신약 시대에 어린 양이 주시는 어린 양의 인이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계14:1)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세마포를 입고, 이마에는 ‘하나

님께 성결'이라고 금으로 새긴 패를 붙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된 그 표적이 이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를 하신 겁니다.(출28:36)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그림자입니다. 지상의 대제사장들처럼, 하늘나라의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분이 되는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 베임을 받은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인이 찍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에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의로운 자, 소위 인 맞은 자가 될 때는 어린 양의 인이 찍힙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든, 어린 양의 인을 받든, 그 인을 받는 사람은 바로 영의 세계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계20:4-6)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자들입니다. 지성소라는 곳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비하신 장소입니다.(요14:2, 계6:9)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따라간다고 그랬지만, 그때 “지금은 올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요14:2)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순교자의 영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있는 영들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생명체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자들을 배출시키셨기 때문에, 만천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셨다고, 하늘나라의 천군천사들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계5:9-12)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독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다음의 하늘나라의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서에 기록된 ‘흰 돌’에 있는 겁니다.(계2:17) 그 흰 돌에 기록한 새 이름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신 이후의 하늘나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흰 돌의 새 이름을 모르면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의 주님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주님 이후 2천여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의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조금씩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를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자리에 앉게 될 때, 나 여호와와는 절대로 그 자리를 물려줘도 후회하지 않겠다.”(시110편) 하고 다윗을 통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대가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늘나라의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존재를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하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히8:5) 장차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의 세계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지성소나 성소가 없을까요?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하실 일을 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고 물려주시겠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멜기세덱의 제사장 자리라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위치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권한을 인계하실 때,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전달합니다.(계5:7)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을 자가 없었습니다.(계5:3) 그것을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물려받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계5:5)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부여받게 되니, 하나님 앞에 시위했던 모든 천사들이 주님께 다 찬양하는 겁니다.(계5:11) 주님이 모든 권한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대행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하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예비했습니다. 그 마련된 장소가 대제사장과 같은 자격자들이 들어가는 장소라 해서 그 장소를 ‘지성소’라

고 합니다.

이런 반열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을 받습니다. 이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찍힌 자들, 즉 하나님의 표시나 어린 양의 표시가 이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수는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한 지파에 일만 이천 명씩 14만 4천이더라.” 하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계7:4) 이들은 각 나라에서 나오며, 육적인 이스라엘과 구분하여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계5:9) 인 맞은 자들만큼은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들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속하는 인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계13:8) 이걸 대단한 겁니다. 이 인 맞은 자들의 수를 완성하는 존재가 바로 이긴자입니다.

예수께서 이긴자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계21:9) 어린 양의 신부는 세마포를 입습니다.(계19:7-8) 그들은 하늘 군대, 14만 4천입니다.(계19:14)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신부이자 하늘 군대의 명단을 알려주는데,(계3:12) 그 이유는 그 수를 채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

라.”(계7:3)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오는 천사의 말입니다. 이 천사는 이긴자와 함께 인을 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가’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긴자에게 함께 일을 할 천사들을 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계3:5)

바로 이런 내용을 이 역사를 하기 전에 주의 종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한테 성경도 안 보고 28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학교 문턱도 안 가 본제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말씀 못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술술 쏟아 내는 것은 바로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 그런 자격자가 되게 해 드리려고 주의 종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죽어서 음부로 끌려갑니다. 음부에 가 있다가 천 년이 차기까지 기다린 후에, 심판 권세를 갖는 멜기세덱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후에 영의 세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지구상에 국가가 이백여 개 되는데, 국가마다 인구가 적든 많든, 대통령이나 왕이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 14만 4천 개의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서 마귀를 가둬 놓고, 모든 세력을 점령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다 친히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계11:17)는 말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향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는데, 이걸 바로 호적과 같습니다. 누가 시집을 가면 그 신랑 되는 그 집의 호적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시집가는 순간부터 그는 그 집에 신랑과 더불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방마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 군병은 주님과 가까운 존재라 해서,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상징한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는 자격자들은 신랑하고 가장 가까운 자로, 신부라고 말하여, ‘어린 양의 신부’(계21:9)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 비유입니다.

Chapter 26.

감람나무의 그림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1990년 3월 29일, 목요일 새벽 설교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바벨론과 이웃 국가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붙들려가서 포로가 되어 비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를 얻고 다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소위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 하나 이상 중에 비유로 나타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슥3:1)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당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여주

신 장면입니다. 이 영적인 차원을 보여주실 때에, 사탄은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여호와와의 사자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속3:2-3) 여호수아가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사탄이 여호수아를 더럽힌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고, 하나님께서 사탄, 즉 마귀에게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속3:2)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켜 주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대제사장을 더럽힐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소위 천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사탄은 여호수아를 더럽히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속3:4) 더러워진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변모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보던 스가랴가 정한 관을 씌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관을 머리에 씌운 후에 여호와와의 사자는 곁에 선 장면을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

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눅3:7)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마치면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기 서 있는 자들과 교류를 시켜 주겠다 이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눅3:8) 예표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여호수아의 동료들로 보여주신 인물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표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때는 언제냐?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눅3:8-9) 하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순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으로 자랄 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사53:2) 이렇게 메시야가 나타나게 되면 그가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돌의 역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사28:16)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돌이 하나 서 있는 겁니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속3:9)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한 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실 때에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더럽히는데, 천사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워지고 더러워지지 않는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먼저 ‘순’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순이 나오고,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혀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만들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루에 제하여 버리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은 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정결하게 되고, 여호와 앞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전히 정결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산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만드신 겁니다.(눅12:10, 13:1)

더러운 옷을 벗기는 일은 선지자 스가랴 당시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상징적인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신학자들 중에는 두 감람나무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두 감람나무의 그림자입니다. 당사자가 아닙니다. 두 감람나무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 예언하신 인물들입니다.(계11:3-4) 그러니 구약 시대 인물이 감람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은 후,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도를 지켜야 합니다. 즉, 그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영적인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기에 그런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동료들, 즉 그 앞에서 있는 자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 일은 여호수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이라는 메시아가 먼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먼저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서 일곱 눈을 받으셨습니다.(계5:6) 그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계4:5) 그렇게 되면 온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여호수아, 즉 감람나무에게 하라고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숙3:9) 여호수아와 연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에게 보여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비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여호수아의 동료들이 바로 14만 4천의 의의 왕들입니다. 그것을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내는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천 년 동안 역사를 해 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마무리 짓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기록하는 스가랴 선지자 자신이 그 내용을 아느냐? 모릅니다. 보긴 보고, 천사들이 말하는 걸 기록은 했어도, 그 뜻이 무엇인가를 스가랴는 모릅니다. 그것은 그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관한 일도 아닙니다.

15, 6년 전, 제가 청량리에서 에덴성회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시대로부터 2,500년 전,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지시한 말들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 30냥에 팔아 버리기도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또 뺨을 치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도 그러는데, 아무리 오늘날 주의 종이 이긴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차원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깨달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 17년간 단을 지키고 나오고 있지만, 일반 목회자들 식으로, 만날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주야장창 금식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아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만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종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성령은 0.1초도 안 떠나고 같이한다는 것, 이게 신의 섭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전달할 때도 성령이 함께하고, 이슬이 쏟아져 내리고, 참으로 이게 사람이 죽어서야 그 신비로움을 깨닫는다고 할 정도로 정확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각분을 짜서 주의 종에게 지시한 대로 이미 일이 이루어져 가고, 또 그 나머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네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게 되면 서울 시내는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발전

을 할 것이다.” 하신 대로,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져 나갈 때, 주의 종으로서는 하나하나가 신비한 겁니다.

그렇다고 주의 종이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육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쫓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뢰감을 강하게 못 느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를 만나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올바른 신앙, 올바른 하나님의 줄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한 대로,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다.” 한 이 돌은 주님이시요, 이 돌을 쥐는 자가 이긴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 돌을 받을 것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계2:17)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참으로 무서운 원리입니다. 오랜 옛날에, 우리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생각나는 게, 이상 중에 세마포를 입은 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당신은 누구요?”, “난 지상에서 어느 선지자 밑에 있던 누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 장면이 생각나는 데, 영의 문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고, 동화 같은 얘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서 주님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하시는 것, 순이 나타나야 되고, 돌을 만드는 역사, 그래서 하나의 뜨인 돌이 그 우상을 깨부수는 다니엘서에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주님입니다.(단2:34) 스가랴서 3장의 말씀대로 주님, 즉 메시아가 나타나야만 더러움을 씻을 수 있고, 정한 관을 씌울 수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실질적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와 순을 나게 하고, 그 순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돌 위에 일곱 눈의 원리를 만들어서 그 돌을 사용하도록 특정인에게 맡겨 주시는 겁니다. 그 돌을 맡은 자는 받은 바대로 약속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 시대가 스가랴에게 지시한 내용을 이루는 시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느껴야겠습니다.

Chapter 27.

스룹바벨과 감람나무

1990년 4월 5일, 목요일 새벽 설교 중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일찍, 젊을 때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지칭하여 말씀하실 때,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네 시대로부터 2,500년 전에 내가 지시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을 한 것만 봐도, 대단히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비유로 보 여주셨던 장면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순을 세우게 되고, 한 돌에 일곱 눈이 새겨지게 되면 죄악을 하루에 제해 버리게 되고, 실질적으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정결하게 하고, 정한 관을 씌우고,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

어지러면 먼저 메시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의 할 일이 바로 일곱 눈을 가진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맞수가 되는 인물, 총독 스룹바벨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두머리라면, 육적인 차원의 우두머리인 인물이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는 종교권을 쥐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권을 쥐고 있는 두 거두들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감람나무의 비유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신비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더라.” (슌4:1) 이것은 전에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준 천사가 다시 이상 중에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그를 부를 때, 자기가 잠자다가 깬 상태와 같은 느낌 속에서 그 상대 천사를 만나고 있었음을 스가랴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상 중에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장면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 중에는 갑자기 장면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었는데, “무엇을 보느냐?” 하는 말을 듣고 보니 눈앞에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네가 이걸 보라.” 하면 그

순간에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펴라.” 해서, 주의 종이 창세기에서부터 펼 때 보면, 빈칸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은 빈 곳이 없는데, 이상 중에 볼 때는 글씨가 없이 비어 있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들여다보라 하실 때 거기서 TV화면이 펼쳐지듯이 영상이 나타납니다. 설교를 할 때, 10년 전, 15년 전에 보여 주신 거라도, 어떤 구절에 대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보여 주신 것이 없다면 설교를 풍부하고 힘 있게 전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보았던 것이 떠오르고, 말하는 당사자에게 성령이 와서 그 순간의 감동과 분위기를 조성해서 열변을 토하게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천사가 와서, “네가 무얼 보느냐?” 하고 물으니, 스가랴 앞에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기록한 대로 스가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장면을 본 스가랴가 천사에게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스룹바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스가랴가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 시대 총독이니까 알고도 남습니다. 스가랴가 등대라든가 두 감람나무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 장면들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나타낸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 중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심을 받았다 해도 그 내용은 모릅니다.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될 일들을 기록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 질문할 때 천사가 비유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크게 입은 걸 알지 않느냐? 그가 산을 쳐서 평지를 만들고 또 머릿돌을 내놓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총, 은총’ 하면서 좋아하지 않더냐? 그게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슌4:6) 하는 식으로 1차 설명을 스가랴에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본격적인 그 등대의 좌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일곱 등불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두루 행하며 살피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곱 눈’(슌4:10)이라 했습니다. 일곱 눈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계5:6) 그러므로 일곱 등불이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을 나타낸 겁니다.(계4:5) 즉, 일곱 등불이나 일곱 눈이나 모두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일곱 눈’은 ‘일곱 눈을 가진 돌’로서의 주님, 즉 메시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시는 ‘일곱 눈’은 감람나무라는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이라는 메시아하고 감람나무라는 존재는 일곱 눈에 의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등대의 역할은 그 시대의 제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촛대로 나옵니다. 이 촛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즉 성도를 상징합니다.(계1:20)

스가랴가 천사의 설명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금 기름을 흘려 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서 있는 두 사람이니라.”(속4:14) 하고 설명했습니다. 기름 발리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즉,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존재는 온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감람나무의 역할은 성도들에게 금 기름을 전해 주는 겁니다. 금 기름은 등잔에 담기는데, 이 금 기름은 스가랴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주의 보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보혈을 전해 주는 감람나무를 당신의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계11:3-4)

금 기름이 등잔에 담겨서 불을 켜게 되는데, 이 등불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계4:5) 다시 말해서 감람나무는 교회에 주의 보혈을 전해 주어서 성령의 불을 밝히는 역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감람나무는 주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정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금 기름이 주의 보혈이라면, 금 기름을 전해

주는 두 감람나무는 주님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스투바벨은 스가랴 시대의 총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후의 감람나무를 나타낸 것입니다.

스투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을 쳐서 평지를 만들고 머릿돌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슌4:7) 당시에 총독으로 있던 스투바벨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이야기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을 평지로 만든다는 것은 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갈게 할 것이다.”(사41:15) 타작 기계는 곡식을 거두는 장비입니다. 타작 기계가 산을 친다는 것은 알곡을 거둘 때 죄를 소멸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야곱, 즉 이긴자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금 기름으로 성도들의 죄를 소멸시켜 알곡을 만드는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예언된 것과도 같습니다.(슌3:8-9)

그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일입니다.(슌4:6) 영적 스투바벨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금 기름(주의 보혈, 곧 생명수 샘물)으로 죄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자에게 죄를 씻는 역사를 맡기고자, 그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게 되는 겁니다.(슌13:1, 계21:6-7)

그리고 머릿돌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서 당신을 돌이라고 하셨습니다.(시118:22, 마21:42)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영적 스룹바벨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이긴자에게 돌을 준다고 전한 겁니다.(계2:17) 그러니 스룹바벨은 주님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니 그는 주의 증거자가 됩니다.(계11:3-4)

또 스룹바벨이 성전을 마친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고전3:16) 여기 성전을 마친다는 것은 의인의 수를 채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의 사명은 14만 4천의 의의 왕을 완성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은 이긴자를 성전 기둥이 되게 해서,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계3:12)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곧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계21:9-10)

스룹바벨, 즉 감람나무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림줄을 들고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감독합니다. 다림줄은 성전이 똑바로 올라가는지 조사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살피는 역할을 일곱 영이 하는 것입니다.(슥4:10) 감람나무는 일곱 영이 살피는 가운데,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면서 성전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네 시대가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지시한 내

용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하는 건 불멸의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예언된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시대라면,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지어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스룹바벨을 내세워서 두 감람나무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이게 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는 역사를 주님이 2천 년 전에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 두 감람나무의 일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젊은 종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을 기록하는 스가랴도 대단히 복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이루어야 할 감람나무는 더 중요한 인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Chapter 28.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1989년 8월 27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이기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이긴자라는 게 입증 된다는 것을 16년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신다면, 그 당사자는 예언적인 종이 아닙니다. 예언된 인물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서에 예언된 인물이 나타날 때는 그 예언대로 움직임으로써 그가 예언된 인물의 주인공이라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서의 역사입니다. ‘나는 몰랐다,’ 하면 상책인 줄 아는데, 다소 변명은 될지 몰라도, 그게 합법화 될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10:16)는 말씀이 있습니다. 덮어 놓고 바보 천치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주를 위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알지 못하면 바로 그 지시하는 분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 지시하신 분에게 합당한 움직임을 보일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두 감람나무다 하는 얘기는 성경 가운데에 오로지 스가랴서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나의 두 증인이다.” 하시며 한 번 더 사용한 것뿐입니다.(계 11:3-4) 주님도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소개하시는 데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주의 종에게 먼저 “2,500년 전,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나 여호와가 지시한 내용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 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시를 기록한 종은 스가랴고, 그 지시받은 내용을 이뤄 놓는 쪽은 현재 움직이는 저입니다.

오늘날 저 같은 경우는 천사가 알려주는 게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천사도 움직이고, 주님도 움직이시고, 하나님도 최종적으로 결재를 내리시는 이런 과정에서는 주의 종이 천사도 만날

수 있고, 주님과도 대할 수 있고, 여호와를 대할 때도 있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구약 시대 스가랴에게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서 있는 자’라고 했으니,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지적해서 세운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신 그 주인공이 나왔으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그때 정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셨던 모든 내용들이 극비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승리의 피권세로 십자가를 지시고 여호와 지시하신 대로 뜻을 다 이루어,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았습시다. 그럼 이제부터 주님은 하나님 대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려니, 그 책의 인을 떼는 겁니다. 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신 장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니,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이 설교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주님은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아신 한계가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 일들이 주님께는 시급한 겁니다.

그렇다고 영광의 주님이 인간으로 또 내려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일찍이 예정하신 인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종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를 섬기는 인물을

두 감람나무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큰 사명을 받는 그런 인물을 정해야겠구나, 주께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통고를 내려보낸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것입니다. 전 기독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주님 말씀밖에는 모릅니다.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의 신문을 장식하는 유명한 부흥사요, 목사요, 2천 년 동안에 지나간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설교하신 말씀 가지고 영웅화되고 죽은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능가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봐야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지시한다.”(계1:19)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년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기록을 해서, 나를 열심히 믿는 신자들한테 보내라.”(계1:11) 보낼 때 아무 데나 보내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택한 일곱 교회가 있다. 한 4, 50개 교회 중에 내가 잘잘못을 따져 가면서 택한 그 교회 목회자, 사자들에게만 편지로 써서 보내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다 보내 놓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자기가 기록할 때 본 장면대로, 주님 앞에 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제자들, 선지자들하고 같이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나하나 진행을 하십니다. 이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미 정해진 뜻을 이루기 위해 각본을 세워서 지상에 내려보낸 겁니다. 거기서 알릴 건 알리고, 감출 건 감추시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나의 두 증거자에게 내가 권세를 주겠다.”(계11:3) 하신 이 두 증거자는 바로 옛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하신 그 종들입니다. “이는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계11:4) 스가랴서의 감람나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고,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한 이 존재는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다’, 하고 단서를 붙여 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두 증거자를 세우시고자 하늘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본 겁니다. 거기서 안 됐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로 가니까 로마를 살펴보신 겁니다. 또 안 됐습니다. 미국이라는 신생국가가 생기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성령을 계속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도 성령을, 영국에서도 성령을, 마귀는 마귀대로 장난하고, 성령의 역사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순교자들도 여기저기에서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이긴자라는, 소위 말해서 감람나무라는 역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성서에 주님이 약속을 해 났으니, 하나님이 권세를 물려준 것처럼 예수님도 그 권세를 그 주인공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하리라.”(계3:21)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앉는다는 뜻은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이겨서 권세를 받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도 그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일곱 교회에 일곱 번이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계2:7 등) 하고 확인을 하시면서 주님이 강조를 하신 겁니다.

이긴자가 나오면 그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권한을 갖게 됩니까? 주님의 권한을 받게 됩니다. 상속으로 주신다는 겁니다.(계21:6-7) 이긴자 외에 성경 66권 가운데 공식적인 상속권을 약속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에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처음 상속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이기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앉혀 주겠다.”(시110:4)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한 대로,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이기는 자가 나오면 이러한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계2:26-27, 3:21) 그럼 하나님의 권한이 주님께 상속이 됐고, 예수님의 권한은 누구에게 상속이 됩니까? 성경66권 가운데에 다른 인물하고 약속한 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건 변론을 해야 합니다. 답이 안 나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뜻을 이어받아서 당신이 이뤄 나갈 역사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를 찾으시다가, 이긴자가 나타나니, 그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시여, 제가 택한 이긴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네 이름이 이영수지?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지상에서 이렇고 저렇고 한데, 어떡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저렇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저 사이에 대화가 오고간 겁니다.

Chapter 29.

알곡과 이한 낫

1988년 11월 6일, 추수감사절 설교 중에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14:14-16)

오늘은 추수감사절인 고로 영적인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흰 구름 위에 인자와 방불한 자가 앉았다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쓸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시8:4) 가장 강력하게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들 중 하나인

다윗이 인자라는 칭호를 붙인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인자와 방불하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방불하다는 겁니다.

인자와 비슷한 자가 구름 위에 앉았다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구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가 낫을 들었다 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천사가 낫을 켜 존재에게, 곡식이 익었으니 거두라 한다면, 성전을 주장하는 천사와 낫을 든 존재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성전을 주장하는 천사가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낫을 든 존재가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땅의 곡식이 익은 후에 거두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때 비로소 낫을 든 자가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떤 존재이기에 낫을 들고 성전을 주장하는 천사와 호흡을 맞추는가?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름 위에 앉은 자가 이긴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쓴 존재가 이한 낫을 가졌다 했는데, 이 낫은 농사지어 거둘 때 쓰는 연장입니다. 영적인 추수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켜 자가 있을 때, 이 존재가 성전을 주장하는 천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 했으면, 거둬들이는 곡식은 어디에서 익힌

다는 것이 됩니까? 성전을 주장하는 천사가 곡식이 익었다 했으니, 성전 안에서 열매가 익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전 안에서 열매가 익어 갈 때에 성전을 주장하는 천사가 지시를 하는 고로, 이 말씀이 응해지려면 이긴자라는 존재가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성전을 주장하는 천사와 교류할 수 있도록 주님은 두 존재를 인사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소개를 한다.”(계3:5)고 하신 겁니다.

이긴자가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가 되었다 해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곡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곳에서 익지 않은 것은 낫을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익은 것에만 낫을 대 거두게 되는 고로, 천사가 “곡식이 익었으니 거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중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상 중에 바람이 불어 알밤이 떨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알밤이 익어서 바람에 떨어지는 것을 광주리에 주워 담습니다.”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알밤과 같이 익어지지 않으면, 거둠을 받지 못한다.”

또 다른 이상 중에, 제가 포도를 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무엇을 따느냐?”

“예, 포도송이를 따니다.”

완전히 익은 것은 잘 따지지만, 안 익은 것은 수십 번 돌려도 따지지 않을 때에,

“그 꼭지가 안 떨어지는 것을 알겠느냐? 익지 않으면 거둬들일 수 없다. 따르는 양떼들이 완전히 익지 않으면 너는 거둬들일 생각을 말아라. 본인도 들어올 생각을 말아라.”

바로 우리 역사가 거둬들이는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거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특명이 그러하니, 단 한 사람이라도 익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곡식이 익게끔 하기 위하여, 보여주심에 의하여 이른 성전인 고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성전을 일컬어서 ‘알곡성전’이라 붙이게 된 겁니다. 이 장소는 계시록에 예언된 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옛날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절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라.” 하셨지만, 오늘날 제가 할 일은, “단 하나라도 좋으니, 내게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라.” 하신 대로, 하늘 군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는 숫자를 모으는 곳이 아니라는 거,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도 반갑지만,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드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달픕니다.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긴자는 낫을 든 존재입니다. 거두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움직일 때는 거기에 뿔뿔을 받으려면,

익다 만 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만들어져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하여 제가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하여 갖가지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도록 하기 위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하늘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당신의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만들어 놓게 하기 위하여 극비의 언약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주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해 나갑니다.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구원받을 줄 압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자기 생각대로 여호와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옛날 사울 왕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 여호와께로부터 크나큰 책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러한 일을 시켰더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몰랐더냐? 내가 왜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삼았던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겁니다. (삼상13:13, 15:22, 11)

일을 한다고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저놈에게 심부름을 시켰던고? 왜 내가 저놈을 심복으로 삼았었던고?” 여호와께서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자는 훌륭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천만다행이다. 내가 참으로 훌륭한

존재에게 기쁨을 부었었구나.” 흡족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배짱이 좋은 사람도 죽음이 눈앞에 오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총칼을 가지고 무수한 숫자를 죽인 영웅호걸들도 죽음이 눈앞에 오면 숙연해집니다. 겸허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앞에는 잘난 자가 없습니다. 이 두려운 공포의 죽음을 환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 주는 선물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을 오늘날 전해 주는 존재가 성경에 기록한 ‘나을 든 자’입니다.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흑자들은 은혜 받은 생명을 ‘우주보다 귀한 생명’(마16:26)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사에 들어온 겁니다.

믿음을 갖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영의 세계라는 또 다른 세계에서 버림받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생긴 이후 2천 년간 수백억이 죽어갔습니다. 순교자들 외에는 전부 다 음부로 끌려갑니다. 마귀 두 마리가 옵니다. 안 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하게 앓다 죽는 사람을 보십시오. 헛것을 보는 것처럼, 안 갈래, 안 갈래, 하다가 죽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도, 그 죽는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뿔이 둘 달리고, 꼬리가 달리고, 초콜릿색 마귀가 와서 데려갑니다. 안 갈래, 안 갈래, 끌려가면서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이가 누워 있습니다. 끌려가는 것은 영이고, 누워 있는 것은 자기 육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습게 여겨지고 현재가 제일로 여겨지지만, 죽는 순간부터는 ‘아이쿠, 이게 아니구나.’ 껍데기를 벗고 난 후에, ‘저건 껍데기고, 알맹이는 여기 있구나. 이제부터 큰일 났구나.’ 도망가려야 갈 수도 없고,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고로, 그때부터 질려 버립니다. 모든 열왕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재벌들, 세상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심판 후에 “쳐 놓으라!” 하니, 끌려가서 자기가 그 불못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지옥의 불 구렁텅이를 보기만 해도 기절합니다. 한 시간 동안 들어갔다 나와도 기절할 판인데, 세세토록 그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어야 하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은 무섭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 여호와께 맡겨라.”(롬12:19) 선지자들이 갚는 건 유가 아닙니다. 모세가 반대하는 것들을 쳐서 능력으로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을 죽여 버렸지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 받으러 셀 수 없이 많은 수가 늘어섰을 때, 심판하는 14만 4천의 왕들 앞에서 발발 뚝니다. 말 한마디에 지옥이나, 구원받느냐가 갈립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재판관을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 뽕뽕 치는 사람들도 잘못이 있어 가지고 재판장 앞에 가면 발발 뚝니다. 징역을 1년 더 살아야 되냐, 10년 더 살아야 되냐, 재판장 말 한마디에 달렸습니다. 그때는 재판장이 생명입니다. 살고 싶고, 감옥 생활하기 싫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손해집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관대

한 평가를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서 “내가 누군데, 너 인마, 네가 날 심판해?” 이렇게 못합니다.

세상의 심판도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그 앞에 가서, “야, 너, 누구 아니냐? 나 누군데 모르겠냐? 옛날에 같이 미꾸라지 잡으러 다녔잖냐?” 이렇게 못 합니다. 그 세계에 가면 하늘과 땅 차입니다. 같이 믿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같이 믿었다가 하나는 범죄해서 나중에 심판대 앞으로 오고, 하나는 왕이 됩니다. 보니까 모두 같은 시대에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용을 더 잘 압니다. 그러니 어찌고저찌고 핑계 대려 하면, “내가 네 시대에 같이 살던 사람이야. 네가 이렇게 된 걸 내 눈으로 본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이거 죄를 하나 더 가산해라.” 도리어 가중처벌해 버립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2천 년간 예수를 믿은 사람들 전체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슬픈 장면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갖가지로 신경을 쓰는 겁니다. 주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 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모릅니다. 백번 애길 해야 여러분들 똑똑한 줄 알지, 주의 종이 눈치 보가면서, 여러분들의 비위를 다 맞춰 가면서 해야 합니다. 빼딱해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을 주 앞에 훌륭한 인물로 세워 주기 위해서, 다른 시대의 사람들보다 앞서게 하기 위

해서 그러는 겁니다.

주와 저 사이에 극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말씀을 조금 비취 놓은 설교집이 나가면, “이거 일리가 있다.”, “진짜 뭐가 있는 존재냐?” 합니다. 그 정도는 껌 데기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알기 쉽게 설교한 게 지금 7집까지 (1988년 당시) 나간 겁니다.

Part 05.

하늘 군병



30. 어린 양의 생명책 · 31.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 · 32. 한 때, 두 때, 반 때 · 33. 영의 전쟁 · 34. 군병이 받을 권세 · 35.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청함 받은 자들 · 36.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 37. 하나님은 아무나 뵈지 못한다 · 38. “나를 위해 살아다오.”

Chapter 30.

어린 양의 생명책

1988년 9월 25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14만 4천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위대한 말씀이 많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증거의 말씀이 많지마는, 이 14만 4천이라는 말씀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 계시록에만 이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즉 메시아 이외에는 ‘어린 양’의 명칭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계5:7)

구약 시대에는 이 책을 ‘하나님의 기념책’(말3:16)으로 일컬었습

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념책으로 불릴 때는 14만 4천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때에 비로소 그 숫자가 알려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하고 주님이 다스릴 때 달리 드러난 내용입니다.

주님이 모든 뜻을 이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모든 하늘의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이 어린 양에게로 넘겨진 고로, 이 책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일컫게 된 겁니다.(계21:27)

사실상 주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한 내용을 떼거나 보거나 하지 못했다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알 자가 없는 겁니다. 그 비밀을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뻗 자가 없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책을 받아 떼신 겁니다.

그 떼신 비밀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지상에 통고해 줄 때에 전함을 받은 존재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직접 인간 세계에 하늘의 깊은 섭리를 감추면서도 믿는 백성들에게 뜻을 전해 주고자 하셨을 때에, 최초로 전달 받은 존재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에게 여러 차례 이상을 보여주고 설명해 준 천사에게 겸손하게 경배를 하려고 할 때, “왜 이러십니까? 당신과 나는 같은 존재입니다. 난 하늘에서의 심부름꾼이고, 당신은 지상에서 주

의 종이 아닙니까?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계 22:8-9) 하고 만류한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 주는 역할을 한 자의 존재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그걸 이루는 자의 존재가 어느 정도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어린 양의 생명책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와 오른손에 있던 책으로, 거기에는 선지자들과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그 밑에 있는 심복들도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니 모세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치 않으시려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출32:32) 주의 종 노릇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말한 책이 바로 여호와와 기념책입니다.

그 다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순교를 당한 영들이 전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르던 부녀자들의 명단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얘기했습니다.(빌4:3)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존재들을 주님이 전부 지성소에 모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수고가 많았다.” 하시며,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각기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영의 옷을 나누어 주셨습니다.(계6:11) 이들이 옷을 하나씩 받아 들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시여, 지상에서 우리를 괴롭힌 원수들에게 우리가 원수 갚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하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과 같은 자들의 그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계6:11)

순교 당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과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하신 겁니다.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 기다려라 하신 지가 벌써 이천 년입니다. 그 이천 년 동안에 계속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뽑아서 계속 기록을 해 오신 겁니다. 그러다 이긴자가 나타나니까 모든 걸 이긴자에게 넘겨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존재로서, 주님이 원수를 갚으려면 먼저 그 숫자가 차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 때에 까맣게 모르신 이유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안과 밖으로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14만 4천이 필요하다, 뭐 어찌더라, 하는 말을 선지자건 누구건 알 자가 없었는데, 사실상 주님이 책을 받으심으로 아시게 된 겁니다.

영의 세계에 간 선지자들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주님에게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시여 도대체 이 세상 끝이 언제 끝나며, 언제나 우리 원수를 갚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성소에 가 있는 영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죽기도 전에 듣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행운이 아닙니다. 동화 같다는 말을 제가 누차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2천 년 전부터 밝혀져 있었지만, 2천 년 동안 기독교회가 그 내용을 모른 겁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요한 계시록이 나오게 됐는지조차 모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역사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 가지 각색의 층하가 다 있는데, 우리 역사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들어와도 세마포를 입는 자격에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선을 못 넘으면 아무도 못 입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네가 이제 모든 것을 알지 않느냐? 14만 4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만들어라.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올 생각을 말고, 너도 들여놓을 생각을 말라.” 하신 겁니다.

세마포를 입는 것은 주의 종과 여러분들의 호흡이 안 맞으면 불가능합니다. 주의 종 혼자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안 됩니다. 그건 주의 종과 여러분들이 호흡이 일치되어 만들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생각을 말라.’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고, ‘들여놓을 생각을 말라.’ 하는 건 저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들어올 자와 들여놓을 자가 호흡이 맞아야 이루어 집니다. 인간이 만든다고 해도,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맡겨 주셔서 하는 겁니다.

14만 4천이 기록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창세 이후로 뿔뿔히 받은 자들이 기록되는 책이요, 어린 양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책임

니다. 이상 중에 가르쳐 주실 적에, 저에게도 그 생명책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미 제가 이긴자의 상태가 돼 있는 고로, “네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하셔서 제가 제 이름을 본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뜻을 이루고 나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권한, 영의 위치, 이 건 확 변합니다. 그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계2:26) 그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저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협조에 달린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일곱 인을 떼시는 주님이 가지신 책이고 14만 4천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일반 생명책은 바로 심판할 때 구원 받는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입니다.(계20:12) 14만 4천이 각자 이 생명책을 한 권씩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의 왕들이 생명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14만 4천 개의 생명책들에 심판 받아 구원받을 무리의 명단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곡성전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세마포 입을 자들이 배출되겠지만, 만약에 세마포 입을 자격을 갖추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고, 일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긴자 시대에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걸 어느 심판 왕이 심판하든, 심판 때 다 나옵니다. 어느 누가 모세 시대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 인물이라는 것도 압니다. 행한 대로 하늘에서 다 체크합니다.

Chapter 31.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

2004년 8월 8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요한 계시록 한 구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17:13-14) 이 장면은 모든 악령들이 그 권세를 짐승이라 하는 마귀에게 준 이후에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받은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어린 양과 더불어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모든 게 능치 못한 것이 없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게 사

실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 2천 년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영의 세계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신 후에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다 아시게 됨으로,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작업을 대신하시는 가운데, 사도 요한을 불러올려서 하늘의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변모하신 내용을 알려주시고,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자상하게 알려주는 얘기를 기록해서 지금 지상에서 나를 믿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편지를 띄워라.” 하시고 일곱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은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신들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 신들의 명칭 중에 소위 말하는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마귀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지적하실 적에 표시하신 것입니다. 사탄이다, 마귀다, 혹은 옛 뱀이다, 이런 전체가 하나님 측에서 반대되는 신에게 붙인 칭호들입니다.

이제 요한 계시록은 그런 칭호 정도가 아니라, 신끼리 앞으로 벌어질 내용들, 또 심지어는 죽고 죽이는 이런 문제들을 담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기독교 신

자들에게는 그 말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또 그 말 자체가 와 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적이다, 하나님이 어쩐다, 해 봤자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긴자란 존재가 나와야 된다. 그 이긴자란 존재가 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또 너희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자상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 대비를 하게 됨으로 때가 가까워질 것이다.”(계2:17 참고) 이렇게 당부를 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 또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계1:3) 하고 단서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죽느냐 아니면 죽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둘 중의 하나가 깨져야 평화가 옵니다. 둘이 존재하고 있는 한,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계속 전쟁이 만들어집니다. 진실한 평화는 어느 신이 됐든 어느 한쪽이 승리할 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렸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악령에게 소위 마귀 괴수가 권세를 다 준다고 했습니다.(계13:4) 최고 괴수에게 그 권세를 받은 마귀의 이름을 요한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에게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비유입니다. 이런 짐승이 모든

권세를 다 맡아 가지고 어린 양과 전쟁을 한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같이 있는 존재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이겁니다.(계17:14)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짐승이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계17:14) 요한 계시록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인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계13:8) 창세기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만큼은 짐승에게 지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계19:14)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군대’라고 명칭을 줬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곧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계시록의 얘기대로, 앞으로 영의 세계가 펼쳐질 때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신끼리 하는 전쟁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어린 양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이 신에게 짐승이라는 신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할 적에 짐승이란 존재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계19:19) 마귀 괴수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조건들을 짐승에게 다 맡겨 줍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짐승이 하나

님으로부터 최고의 권세를 받으신 어린 양과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때 어린 양이 데리고 나오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멤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군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서 결국은 짐승하고 대치를 하는데, 이렇게 대치되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지는 사람들이라면 전쟁터에 데리고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큼은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하는 자들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지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또, 우리 주님이 그동안 어린 양의 책에 녹명되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자들을 모집하고 있는가? 짐승에게 지지 않는 멤버를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에게도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 멤버를 만들어 달라.”는 게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을 자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멤버들이 만들어지면 그들은 짐승의 권세에 굴복을 안 합니다. 억조창생들이 다 굴복하는데, 그 멤버들만큼은 굴복을 안 합니다. 이런 멤버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축의 여건은 유리해지니, 이 시대의 마귀인 음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는 그걸 만들어 내는 존재를 가로막는 겁니다.(계17:1)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존재하고,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음녀라는 존재가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는 영의 세계의 시대에선 짐승이라는 존재하

고 어린 양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육적으로 싸우는 첫째 전쟁이고, 지금 시대는 이긴자와 음녀가 인간의 혼을 두고 싸우는 두 번째 전쟁이고, 어린 양과 짐승이 영의 세계에서 싸우는 전쟁은 세 번째 전쟁이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이 근 20년 전에 요한 계시록을 강의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3단계의 전쟁이 있다. 이걸 모르면 요한 계시록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이라야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느냐? 그건 바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훈련이 다 되어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짐승이 지배를 할 수가 없는 멤버들입니다. 이들이 훈련받는 기간이 천 년입니다.(계20:3) 그동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군사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계14:3)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뭐냐? 바로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빛을 발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하고 정반대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을 못 이깁니다. 어둠이 빛에 삼킨 바 되어야 합니다.(고전15:54)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란 어둠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마귀와 싸울 때에 입는 옷입니다. 빛이 발산됩니다.(계19:8)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서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되면,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자격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는 겁니다.

가서 바로 주님의 안내를 받아 지성소에 있는 영들하고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군대는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숫자를 밝히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적에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를 형성하듯이, 영의 세계에서 그와 비슷하게, 한 지파에 일만 이천 명씩, 14만 4천 명이 형성됩니다.(계7:4)

14만 4천인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는 그 노래는 군가를 말합니다.(계14:3) 그래서 군인만 배웁니다. 일반인들은 안 배웁니다. 하늘나라의 14만 4천인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그 노래는 평범한 노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나라가 일반 사람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 지금은 들어갈 때도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심판이 있은 후에나 들어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하신 것은 세마포 입을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전쟁터에 나가시는 판인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전쟁을 하실 정도면 상대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강한 상대와 싸워서 그 세력에게 지지 않는 정도가 되려면, 주님 못지않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군병은 주님과 방불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반열에 속하는 것을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이라고 말합니다.(히6:19-20)

그런 조건의 존재가 만들어질수록 악령들은 너무나도 불리해집니다. 그게 신의 조건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소위 말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을 대동하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주님의 군대는 바로 14만 4천 명의 특공대들입니다. 악령 쪽의 군대의 숫자는 능히 셀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 모래알 같다고 했습니다.(계20:8) 14만 4천 대 셀 수 없는 숫자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드온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저쪽이 많고 해서 이쪽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딱 14만 4천 명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적들은 모래알 같이 많습니다. 악령들을 모집해서 짐승이 선두에서 끌고 나올 때, 마치 무슨 컴퓨터로 만든 전쟁 영화처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숫자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싸우는 장면을 윤곽적으로 나타낸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거기에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이 안 나오나, 두 감람나무가 어떻게 당한다, 사흘 반 만에 어쩐다, 별 동화 같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걸 어느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가 알고 믿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영의 세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독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개국 이래로 없는 전쟁입니다.(단12:1) 그것이 끝나야 심판
이 베풀어집니다.(단12:2)

Chapter 32.

한 때, 두 때, 반 때

2001년 12월 2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은 기독교 안에서 가장 소중한 얘기 이면서도 수수께끼로 남은, 너무나도 알기 힘든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빛과 어둠의 싸움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만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얘기가 나오면 알기 싫어도 알아야 하는 내용이 대두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조건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조건은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최고의 도전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도록 보안조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안조치를 깨고 뚜껑을 열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전쟁을 선포해서 하나님 측에서 마귀를 꺾는 때를 말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얘기입니다.(단12:7)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창세 이후로 유대교가 생기고, 기독교가 생기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수십억 인구가 믿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설명을 하지 않으셨던 것인데, 오늘날 제가 여러분한테 최초로 공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새로운 무기를 만들 때면 아주 극비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사용할 때가 되면 사용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기의 비밀을 그대로 감춰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이 무기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다 하고 그 무기에 대한 극비사항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의 내용은 전쟁할 때 쓰이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 파괴된다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단12:7)

마귀 측에는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지만 하나님 측에는

1,260일이 나옵니다.(계11:3, 12:6) 그렇다면 마귀측이 움직이는 ‘한 때, 두 때, 반 때’나, 하나님 측에서 움직이는 ‘1,260일’이나 기간이 같습니다. 그럼 마귀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측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군가? 바로 감람나무밖에 없습니다.(계11:7) 그래서 감람나무가 ‘1,260일’을 예언하는 겁니다.(계11:3)

그럼 왜 1,260일인가?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했을 때 42달입니다. 또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즉 3.5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정을 나타내는 수로 3을 정하셨고, 땅의 일을 나타내는 수로 4를 정하셨습니다.

주님이 3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3년 동안 하셨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도 셋입니다.(마 28:19) 성령과 물과 피도 셋입니다.(요일5:8)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3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수로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종인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주의 일을 40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호렙 산에 40일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4라는 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과 연관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협력으로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3수와 4수를 더한 7수를 완전한 수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 일곱이란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수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그 중간인 3.5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3.5로 표시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3년 반, 3일 반, 또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도 합니다. 한 때가 1년이라고 치면 한 때, 두 때, 반 때를 합하면 3년 반이 됩니다. 모두 같은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된다.”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을 했습니다.(단12:7) 그러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대두되는 인물이 누군가? 바로 감람나무밖에는 없습니다.(계11:3-4, 7)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여호수아도 아니고 감람나무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얘기는 기독교계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겁니다. 지금 처음으로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이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가 상대방 마귀가 승승장구하고 주장하는 기간이라면, 반대로 하나님 측은 그 기간 동안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배를 받는 기간은 슬픈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을 하는 자는 굵은 베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계11:3) 그 기간 동안 죽임을 당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계11:11) 일어나서 전쟁을 하

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아무리 성서에 악령은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각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막상 부딪히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번개코자 한다.’(단7:25)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쪽도 변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감람나무라는 하나님 측의 사령관은 저쪽에서 변동이 나면 이 쪽에서도 변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본은 되어 있으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국 이래로 이런 전쟁이 없다.’(단12:1) 악령과 성령의 전쟁입니다. 수백 번 보면 뭘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이 전부 전쟁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얘기 같지만, 아는 자에게는 간단한 얘깁니다.

Chapter 33.

영의 전쟁

1987년 10월 1일, 14주년 기념예배 목요일 저녁 설교 중에서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대적하는 신입니다. 선과 악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때 중간에 사람을 두고 싸운다는 말을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인간은 중간에서 싸우기 싫어도 자연적으로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인간과 인간끼리 투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육적인 하나님으로 군림을 하시게 됩니다. 인간들을 다스리는 모든 방법도 육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율법도 육적인 겁니다. 전쟁하는 방법도 육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하나님을 ‘육체의 하나님이다.’(렘32:27)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친히 당신의 종들에게 “나는 너희의 육체의 하나님인 고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고로 “너희

가 낳은 첫째 아들은 내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민3:1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르는 짐승까지도 첫 새끼는 내게 바쳐라.”(레27:26)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제 수천 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습니다.

반대로 적군들, 즉 악령을 섬기는 백성들은 악령을 섬기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 중에 하나님과 마귀가 치열하게 싸웠던 장소로 ‘므깃도’란 곳이 있습니다.(왕하23:29) 이것이 그리스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비유로 하여,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사도 요한에게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계16:16)

인류가 저지른 가장 악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또 애굽인들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핍박을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을 내리며 싸웠습니다. 이때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신들을 힘입어 능력을 행했습니다. 또한 악이 극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하게 형벌을 내리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이 세 장소는 요한 계시록에서 비유로 등장하게 됩니다. 두 증거자가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는 장소를 영적으로 ‘소돔이요, 애굽이요, 골고다다.’ 이렇게 요한 계시록에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계11:8)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마귀도 역시 하나님을 치는데 필요한 고로 사람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내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는 문제도, 마귀가 이기는 문제도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양측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고 안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상대방인 마귀를 목표로 해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마귀 때문에 지으신 겁니다. 그럼 마귀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하고 느낀다면 하나님을 유리하게 만드는 조건을 부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싸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과 진’(계20:9)이 나오는데, 진이라는 건 요새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 있고, 진도 있고, 광야도 나오고, 성경에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또 1,260일이 나오고,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고, 또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고,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알아내려고 노력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260일이라는 상징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탱크를 가지고 싸운다고 칩시다. 상대방은 탱크로 나오는데, 다른 한편은 총으로 대응한다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만

약에 곳곳에 마귀가 있고, 마귀의 모든 조건이 강하다 할 때는 이 쪽에서 들이칠 때 작전을 써야 됩니다. 그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어 있는 자가 아니면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에게 꼼짝없이 벌벌 떨고 경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계13:8) 그러면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떤 힘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이겁니다. 백억이 있으면 뭘 하고, 천억이 있으면 뭘 합니까? 적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전략을 깨달아서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만 기록한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 책에 녹명된 자들만은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이 이러한 존재이니, 너희들은 싸울 때 이러한 무기들을 갖고 이러한 여건을 가져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받은 자밖에 모르도록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는 각본을 봉함을 해 놓으신 겁니다.(계2:17) 총사령관이 아니면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만 아시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승리하신 대가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는 분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주님이 단 한 사람, 이긴자에게 전달해 줍니다.(계2:17) 그러면 그 자가 움직이는 모든 여건은 곧 주님이 뒤에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잠망경과 같습니다.

그럼 24시간 중에 단 0.1초도 마귀가 그 존재에게 못 들어가는

고로, 다시는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아니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막아도, 주님과 그 자 사이에 오르내리는 성령은 0.1초도 못 막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신령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으로만 가능하리라.”(눅4:6)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왜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파고 또 파도 근사치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볼 새도 없이 움직여야 하는 그 바쁜 중에, 안과 밖으로 갖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단에만 서면 깊고 오묘한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당사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못 생명들에게 값없이 부어 주어서, 수정같이 맑은 걸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을 쥐고 나가는 고로, 마귀가 그 자를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계 21:6-7) 그 자만 없으면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치질 못하는 고로, 마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자 하나 때문에 하늘에서의 조건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수많은 인간들의 제사가 그 자가 아니면 올라가질 못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자가 아니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죄를 제하여 버린다.”(눅3:9)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게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는 주의 종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가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다가 없다가, 감동이 됐다가 안 됐다가, 주님이 기억하다가 안 하다가, 마귀가 들어갔다가 쫓겨 나갔다가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에는 성령 이외에는 0.1초도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불담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령이 너를 틈타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너를 불담으로 지키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따르는 양떼들에겐 최대의 재산이요, 시키시는 주님에겐 최대의 강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 밑에서 기름을 받고, 그 자 밑에서 지키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저를 놓치지만 않으면 책임지고 주님 앞에 세워 드립니다. 주와 저 사이에 그런 언약이 돼 있는 겁니다.

Chapter 34.

군병이 받을 권세

1990년 5월 13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잘믿든 못믿든, 혹은 믿지 않는다 해도, 누구나 영의 세계를 가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영의 세계에 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등장할 하느냐 하는 문제가 기독교의 가장 깊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동안에는 각자 희망과 각자 노력의 대가를 받고 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하늘의 세계에 갈 때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똑같이 믿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진실함과 진실치 못한 것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 속에 살던 수많은 억조창생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피

할 수 없는 그 세계, 그 현상, 이러한 점들을 잠시나마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 계시록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계20:4) 이들은 하나님의 군병으로, 마귀를 멸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판하는 멤버들의 사무실 안에는 심판 받을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들이 산더미처럼 순서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상에서 강도질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럴 때에 그 한 사람을 재판해서 언도를 내리기까지도 세상 시간으로 며칠도 걸리고, 몇 달도 걸립니다. 그러니 영의 세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과정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옛날 모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움직인 것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은 영의 생명들이 만들어지는 세계에 대한 내용을 말하므로, 처음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새 언약은 첫 언약과 흡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상에서 베풀어지는 재판의 광경으로 영의 세계의 심판하는 광경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어떠한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계20:4) 여기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와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다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계20:4, 13:8)

영의 세계에 가면 악령에 속한 영들과 성령에 속한 영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성령이나 악령에 의해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친구고 가족이고 친지인데, 영의 세계에서 서로가 봐도 지상의 세계에서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내든 자식이든 기억이 남아 '내 아버지다. 내 자식이다.' 하지, 전혀 모습이 다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인척 관계가 감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상의 모습으로 나오고, 나도 지상에 있던 모습으로 나온다면, '아이고 네가 누구구나!'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무덤에 계신 주에게 마지막으로 향유라도 뿌려 드리려고 조용히 갔습니다. 가서 보니 로마병정들이 쿨쿨 잠들어 있고, 돌은 굴러져 있고, 거기 주님은 안 계시고 동산지기가 선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셨습니까?"(요20:15) 그때서야 "마리아야." 하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모습은 아니었는데. 만지려 하니까 "손대지 말라."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옆에 지상에서 살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네 이놈, 거짓말 할 거냐? 네가 이렇게 살았어.” 지상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그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삭제 받지 않은 건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 그대로 기록이 다 나옵니다. 자기가 이실직고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인하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욕으로 있었던 자기를 봅니다. ‘내가 저랬구나.’ 그게 심판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데, 또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계20:4) 성경에는 ‘만왕의 왕’이 나옵니다.(계17:14) 어린 양이 만왕의 왕으로 불리는 것은 14만 4천의 왕을 다스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앉는 보좌를 소위 백보좌라고 합니다.(계20:11) 왕들이 앉는 보좌다, 그 소리입니다. 이 보좌에 앉는 자들이 14만 4천 명으로, 이들은 왕 권세, 심판하는 권세,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직분, 세 가지 권세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계20:4-6) 어마마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앉는 보좌는 여호와와 우편 보좌로 멜기세덱의 제사장 자리입니다.(행7:55)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는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보좌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와 내일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계2:26) 그에게 주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를 물려받은 것처럼, 보좌를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계

3:21)

보좌 얘기가 나왔으니,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음가는 보좌가 주님의 보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긴자가 앉는 또 다른 보좌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주님의 가장 가까운 네 생물들, 그 다음에 왕들 중에 대표가 되는 24장로가 앉는 보좌,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지금 여기에 말한 모든 권세를 갖는, 왕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와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14만 4천 개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이 여섯 가지는 왕권에 속하는 계열입니다.

지상에서도 장관이다, 그 다음에 차관이다 하는 식으로 급수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그 급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권위자로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었다.’(계 19:6) 할 때 어린 양도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고전15:25)

이들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는 세계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발등상 되고 나면 이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됩니다.(계22:5)

Chapter 35.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청함 받은 자들

1989년 2월 26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차이점은 있지만, 마지막에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 주의 종들과 또 그 시대의 믿음의 식구들이 전부 영의 세계에서 등장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한 시대에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 만남이라는 것이 말이나 글로 형용할 수 없는 반가움과 환희에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를 초월해서, 서로 조건이 다른 가운데에서 고생한 사람들, 말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일생을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 영원한 광명 세계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복받쳐 오르는 감격의 순간들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그 사도 선지 성인들, 제 주를 모셨네. 내 예수 아는 친구여, 쉬 같이 모이세.’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주

를 아는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데,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대로, 또 선지자들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고생한 대가대로 호명에 의해서 전부 배열이 되는데, 그때 서로 만나서 인사를 주고받는 그 장면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이 안 갈 정도로 신비합니다.

그 화려한 순간의 분위기 속에서 지상에서 지냈던 과거의 고통스러움, 이런 것은 사실 별로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 그야말로 신비의 세계가 베풀어지는데, 거기에 여호와 친히 다스리는 세계로써 움직여지는데, 그 규모는 가히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선지자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에 대기하고 있는 영들을 제가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서 “택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을 때, 상대가 “나는 누구요. 지상에서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는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한테도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지금 택에서 하는 사명이 감람나무 사명이라지요?”

“지금 그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자기는 이미 그 세계에 와 있지만, 이 역사를 부러워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심에 따라서 한 경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가 살아 있는 감정에 의해서 느껴지는 바가 되겠습니다. 저 자신이 육이라는 것을 벗어 버리고 완전한 영이 되었을 때

느끼는 건 더욱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세계의 화려함을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신비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이루어지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성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음성을 들을 때, 광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같이 자기 귀에 들리는 바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세계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천년세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통치하는 세계고, 천년세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이런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고전15:25)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불가불 왕 노릇하시는 시기는 마귀가 완전히 발등상 되지 못한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히1:13)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했으면 마귀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여호와와의 지배권 안에 드는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장면은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

지는 장면입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계19:7-8) 요한은 제3자로서 설명을 듣고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요한은 기록만 한 거지, 그걸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록하는 자가 큰 겁니까, 이루는 자가 큰 겁니까?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기록한 당사자가 사도 요한이고,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서 여기에 대한 진가를 이루어 가야 할 존재를 여러분들이 오늘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계19:9)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가까운 사람들을 예식에 오도록 청첩장을 보냅니다. 이 지상에서 혼인식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은 내 빈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경꾼입니다. 그런데도 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말도 못하게 복이 있다 이겁니다. 도대체 여기에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청함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의 아내도 아닙니다. 그 결혼하는 것을 보고자 가는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그 멤버들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결혼을 하는데 양가 부모가 “결혼식에 와 주십시오.”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청첩장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다 신랑, 신부의 친

구라든가, 집안이든가, 친척이나,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라야 ‘좀 와 주십시오.’ 하고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럼 여기에 어린 양이나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내빈으로 와 주십시오.” 하고 청첩장을 띄운다면, 어린 양의 아내가 14만 4천 명인데, 이때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 나 혹은 어린 양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연관이 있는 사람이 초청을 받는 겁니다.

14만 4천은 왕들인데, 이렇게 왕이 되는 사람이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식을 할 때, “이 신부는 이 신랑하고 어떤 관계에서 오늘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신부가 주님의 아내가 되는 동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장소는 지상에서 말하면 예식장과 같습니다. 건물로 따지자면 장충체육관같이 원형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 건물로 되어 있으면 이쪽저쪽에서 서로가 다 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게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14만 4천 명이면, 한 사람이 백 명만 초청을 해도 1,440만 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 인구보다 많은 숫자인데, 엄청납니다. 그래도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에 가서 앉도록 좌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형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해 보면 알 겁니다.

장충체육관이 원형인데, 8천 명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부와 하객이 들어가는 장소, 으리으리한 의자와 엄청난 좌석 배치, 그야말로 격식을 다 갖춰서, 신부만 해도 14만 4천 명이고, 초청받은 자만 해도 1,440만 명이라면 그 규모는 가히 짐작이 갈 겁니다.

이때에 주례자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신랑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아내 되는 자격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소에 실제 들어가는 순간에, 최고급 옷을 입고 거기에 결혼하러 들어가는 사람의 그 의기양양한 자태는, 보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본인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도 좋은 분을 신랑으로 만나 가지고 면사포 쓰고 들어갈 때 신부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들어갑니까? 좋아서 싱글벙글하고. 그렇게 싱글벙글해 봤자 2, 30년 지나면 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좋은데, 세세토록 존재하는 세계에서, 성도들이 일평생 고생한 대가로 영원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단한 행차로 들어가는데, 그게 14만 4천 명을 다 일일이 안내를 해서, 순서에 의해서 혼인을 하게 되니, 지상에서 해도 수천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세월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니까. 그러니까 혼인 기간만 해도 인간 수명의 몇 백 배가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얘기 자체가 동화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의 세계가 그렇게 펼쳐지니, 지상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천당 가는 사람이 죽자마자 나룻배 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코스모스 핀 길을 따라가서, 거기서 뭐 과일이나 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천국이 아니라는 거,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혼인기약이 이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오다!” 하고 찬양을 드리는, 뇌성병력같이 들리는 소리는 누가 내는 소리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결혼하는 사람들, 면사포 쓴 신부들이, “신랑, 브라보!” 그러면, 내빈이 왔다가 “아이고, 신부가 드디어 미쳤네.” 아마 이럴 겁니다. 그 축하해 주는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아니고 내빈입니다. 그럼 내빈이면, 지금 여기에 말한 대로, 내빈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 같다 한 겁니다. 사실상 사도 요한이 그 목소리가 누구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 주의 종은 그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장면이 펼쳐지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그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서 천사들의 호위를 받아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좌석 배치가 되는 동안, 한 사람씩 들어가면 주님이 직접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예식장에 가면 신랑이 있다가 내려와서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서 주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식 행위가 그와 같지는 않아도, 14만 4천에서 가령 “1번!” 하면, “1번, 누구입니다.” 하

고 들어옵니다. 개선장군입니다. 천사들이 안내를 해서 주님 앞에 도착하면 주님이 손을 잡고서 그 엄청나게 많은 내빈들이 있는 데서 소개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고생을 해서, 나의 아내 될 자격이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이 소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내온 과거를 주님이 반도 소개하기 전에 다 읊니다. 감격해서 우는 겁니다. 자기가 고생한 것을 주님이 빼놓지 않고 소개를 하시니까, 잊어버렸던 과거가 생각나며 거기에서 감격해서 막 흐느껴 울 때 주님이 손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소개가 다 끝나면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찬양소리에 의해서 안내를 받아 자기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럼 “그 다음 차례, 2번.” 하면 또 2번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상의 세월로 따지자면 엄청난 세월이 흐르는데, 1번은 14만 4천 번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 아무나 하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화장실도 가야지, 밥도 먹어야지. 그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입니다. 왜? 거긴 아무리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는 세계입니다. 아무리 앉아 있어도 소변이 보고 싶지 않은 세계입니다. 아무리 앉아 있어도 지루함을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이 다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도 괴로움을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게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동화 같습니까?

그러한 순서를 거쳐서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을 때, 많은 시선이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 초청받은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각 시대마다, 각 족속과 방언 가운데에서 뽑힘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대우받는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부러움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건데, 거기에 혼인을 하는 당사자야 말할 것 있습니까?

그러니 영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한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상에서 감히 비유를 할 수 없는 정도로 규모가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14만 4천 중에 제일 꼴찌, 14만 4천 번의 왕이 되어도 청함을 입은 자들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 사람의 사인에 의해서 청함을 받고 못 받는 겁니다. 청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어마어마한 계급 제도 안에서 복을 받는데,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나라의 저명인사들인 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호적으로 올라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밤낮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4만 4천만큼은 여호와를 직접 대면합니다. 그 나머지 숫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급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대통령이 있는 걸 알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서 어찌고저찌고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대면을 하는 식으로, 하늘나라는 더더욱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의 계급 제도가 또 하나 밝혀지는 겁니다. 첫째, 제일 높으신 분은 하나님, 두 번째 주님, 세 번째 이긴자, 네 번째 네 천사장인 네 생물, 다섯 번째 이십사 장로, 여섯 번째 14만 4천의 왕, 이어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일곱 번째 서열이 되는 겁니다.

Chapter 36.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1975년 1월 26일, 주일 새벽 설교 중에서



계시록에는 이긴자에게 허락되는 일곱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섯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3:12) 오늘은 이긴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서의 끝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될 자격자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적에, 이상 중에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오색찬란한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성을 보여주었습니다.(계

2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지시를 한 것이 첫 언약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식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 그 형 아론에게 입혀줄 예복을 갖추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예복을 굉장히 아름답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복을 입지 않으면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세마포로 된 제사장복을 입게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 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흉패입니다. 이 흉패는 어른의 손 한 뼘 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열두 개의 보석을 네 줄로 박습니다. 한 줄에 세 보석씩 해서 열두 개가 들어가는데, 보석 하나에 한 사람씩 적어서 열 두 이름을 이 흉패에 새깁니다. 이 보석의 원리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의 원리가 같습니다. (출28:15-21, 계21:19-20)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고, 관 위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서 청색 끈으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 맞은 자의 수가 한 지파에 일만 이천 명씩, 열두 지파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계7:4) 이것은 육적인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 이마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인을 맞은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반열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레위 지파지만, 주님은 유다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제사장 자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 인생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이 제사를 가리켜서 불완전한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히7:11)

그럼 이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 아닌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한다는 예언대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히7:11)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나타나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들이 다 필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마27:51, 히10:20) 제사장이 바뀌면 모든 제사 제도와 율법도 변혁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고, 온전한 가운데서 세세토록 직분을 행하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계20:6) 이 직분을 맡은, 첫 열매되는 제사장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고전15:20, 히6:20) 즉,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를 따라 14만 4천의 제사장들이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만들어질 때, 정한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습니다.(계19:8) 구약 시대 제사장복은 그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을 받는 숫자도, 또 세마포를 입는 숫자도,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도 역시 14만 4천 명입니다. 다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아내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이긴자 위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계3:12) 하나님은 이긴자에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그 자격자를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 내려야 날 수가 없었습니다. 암만 공로가 많아도 의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보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흠과 티를 제하는, 주의 거룩한 성체에서 흘러신 그 보혈이 없었던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권능을 행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는 능력을 행했지만, 줄게 마귀 하나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새로운 성령을 받은 후에 무당이나 점쟁이를 만나면 그 속에 있던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쫓겨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봅니다.(행16:18) 바울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롬5:19)

그런고로 오늘날에 그 보혈의 은사가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연결이 되어, 여러분들이 값없이 죄를 소멸 받을 수 있는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론이 입고 있는 그 예복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고로, 아론이 가서 제사를 드리면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여호와께 상달이 되면 열두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소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 그 존재에게 모든 걸 기록한다고 한 고로, 그 기록한 존재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제사가 상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hapter 37.

하나님은 아무나 뵙지 못한다

2003년 9월 13일, 30주년 기념예배 토요일 저녁 설교 중에서



영의 세계에서든 정해진 숫자만 하나님을 뵙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를 알고 있는 분들이 상상도 못할 겁니다. 천국을 가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대할 줄로 알고 있는 이런 신앙의 운동은 사실상 알고 보면 진리와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에 국가가 현재 이백여 개 됩니다. 뭐 다른 나라는 얘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4,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계신데, 그 대통령을 개별적으로 만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란 것은 이 억조창생들이 다 한꺼번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도 받고, 또 많은 숫자가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아서 각 계층대로 화려한, 아주 계급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세계인데, 거기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 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교인들처럼 그냥 믿는 역사가 아닙니다. 영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섭리를 만나다 보니까, 신의 세계를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겁니다. 신께서는 담당자에게 신의 세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일을 못 하니까 그것을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그 내용을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입을 봉하라.” 이런 특명을 받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근황을 아무나 함부로 보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자격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고 요한 계시록은 기록을 해 놨습니다.(계22:3-5)

주님은 이상 중에도 직접 대화도 나누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때는 지상에 계시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광채 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지만,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나타내시질 않습니다. 저도 두 번이나 하나님을 알현했지만, 얼굴을 뵈진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거룩한 성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본다고 뜻을 박은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계22:4)

하늘나라에 등장하는 수는 수백억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아무나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슬하에서 살 수 있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세마포 입은 자격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며느리입니다. 집안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측근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표시한 것입니다.

Chapter 38.

“나를 위해 살아다오.”

1989년 9월 30일, 16주년 기념예배 토요일 저녁 설교 중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창1:26) 다른 존재가 내가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다면 내가 편리해집니다. 대통령, 장관, 이렇게 높은 분들은 다 비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손발이 되어 움직여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코끼리 모양으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사자 모양으로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창조주인데 세퍼드가 있어야만 상대를 쥐을 수 있다면 저는 나와 같은 이런 인물을 만들지 않고 세퍼드를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존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에게도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가령, 큰 회사 회장이 자본이 몇 백억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권을 가진 자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대신할 인물이 없어서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업으로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상적인 창조력을 발휘한 게 사람을 만드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거꾸로 마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 버렸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쫓아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생명 과일을 따먹으려고 에덴동산에 들어올까 봐 화염검으로 지키셨습니다. 왜 지키느냐? 여러분들, 내 집에 내 자식이 들어오면 가만히 둡니다. 그러나 내 집에 내 자식이 들어오는 데도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면 그는 이미 남의 자식이 된 겁니다. 남의 자식이 놀러 와서 안부 묻고 그냥 간다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 과일을 따먹을까 봐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상대가 누가 됐든, 상대를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염검으로 지켜야 됩니다.

전에는 지킬 필요가 없었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창6:6) 여호와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하다,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만을 제일로 여겨라. 내가 신 중의 신이니라. 다른 신을 섬길 땐 작살낸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계속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제일이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로 되어 있으니,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만사형통이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면 된다, 이게 기독교다 이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람의 힘을 빌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되는 운명도,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 사람들을 먼저 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씨’를 보게 됩니다.(사53:10) 이 ‘씨’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씨가 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한테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했듯이, 씨앗인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달게 받아야 되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이야 어떻게 믿든,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이긴자가 나와라.” 하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긴자가 안 나왔을 땐 약속한 게 필요 없지만, 나왔다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나왔다 할 때는 ‘이긴자가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늘에서는 이행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Part 06.

간증



39. 여호와 알현 · 40. 알곡성전 건축 지시 · 41. 알곡성전 건축 후 이상 ·
42. 원시생활 모습과 가인의 표

Chapter 39.

여호와 알현

1978년 11월 18일, 5주년 기념예배 토요일 새벽 설교 중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서 움직이신 동태를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말씀드리자면, 7~8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시는 장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장면, 당신이 직접 만든 책상 위에 이사야서를 놓고 들여다보시면서 고민하던 서너 가지의 장면, 겿세마네 동산에서 혼자서 죽음과 싸우시며 몸부림치던 장면, 그 다음 부활하시고 변화된, 영광으로 빛나는 주님의 장면,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장면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를 오늘날 양떼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늘에서 영광 중에 눈부신 찬란한 옷을 입

고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처음 저에게 나타나셨을 때, 육적인 주님의 모습은 수차례 보여주셔서 알고 있었지만, 변화하신 주의 모습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주 쳐다볼 적에 “뉘십니까?” 하니, 제 이름을 부르시고, “나사렛 예수니라.” 하셔서 주님인 것을 알고, 그 순간 감격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자.” 하시는데, 제 손을 잡으시니까 제 몸이 뜨는 겁니다.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난 공수부대도 아니니 낙하산도 타본 적이 없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본 적도 없는데, 기껏해야 중학교 때 수영 배우다가 다이빙한다고 조금 높은 데서 물속으로 뛰어든 적은 있어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손을 잡자마자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몸이 공중으로 뜨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무서우니까 자연히 밀을 안 보려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겁니다. “꽉 잡아라.” 그래서 한참 올라가다가 이렇게 밀을 보니까, 그때 제가 비행기를 타보기 전인데, 저 밑으로 집들이 보이면서 멀어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구름 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니, 주님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들이 왜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 구절이 기

억나서, 이상 중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님.”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두 천사가 옆에서 호위를 하고 주님이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까?”

“그렇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도 못하고, 손을 놓치는 날이면 구름 속으로 빠져 나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부터 음부를 지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음부가 지구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을 한참 가다 말고 이제부터 음부를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희한했습니다. 제가 알았던 상식이 깨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손을 꼭 쥐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주었는데, 그때 주님의 손을 쥐 감각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데,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양옆에서, 길이를 재자면 이 강대상 이쪽하고 저쪽만 한 거리가 되는 양옆에서 시커먼 손들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날 잡으려고.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캄캄한

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를 잡으려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워서 주님의 손을 꼭 쥐고선 아무 소리 없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고선 한참을 지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은 안 떴어도 캄캄한 데 있다가 밝은 데로 나오면 눈앞이 환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을 안 뜨고 가만히 있었더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지 모르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을 떠라.” 그래서 슬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서서히 눈을 뜨면서 밑을 보니까, 아래가 반질반질한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쭈그리고 앉은 상태인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고 보니, 한 30미터 정도 앞에 엄청나게 화려한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양쪽으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좌정해 있는 것이 느껴지고, 그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용광로에 쇠가 달아 뜨거운 열이 나는 것처럼, 그 빛이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하반신만 보이고, 누가 좌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좌도 불빛 때문에 안 보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좌 옆에 누가 서 있어서 보니까, 제 손을 붙잡고 오셨던 주님이 공손한 자세로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서 계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오른쪽입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주님이 고개를

속이고 계시다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택한 이긴자입니다.”
주님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서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름이 이영수지?”

“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경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듣고, “저는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것을 물려줘서, 많은 국민들이 있고, 재물도 많고 하니까,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많은 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속으로 여호와의 모습을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제 뒀에는 한 번 윤곽을 잡아 보겠다고, 안 보는 척하면서 슬쩍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두 번째 감람나무로서 할 일을 지시하마.” 그래서 제가 어리벙벙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웅장함에 질려 가지고 어리벙벙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공식적으로 대화를 처음 나누는 겁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며, 옆에 있는 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앞으로 될 영의 세계, 거룩한 성의 모습을 보여줘라.” 명령이

떨어지니, 여호와 오른쪽에 있던 존재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손을 잡으니 저절로 몸이 가볍게 떠서 달려 갔습니다. 한참을 가니 오색찬란한 광채가 앞에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찬란한 빛 가운데 형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성입니다.

성의 모양이 서울역의 둥그런 지붕, 곁에는 만리장성의 성곽과 같았습니다. 어느새 성전 안의 문턱에 도착하니, 복도가 황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질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다음은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솔로몬처럼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알려주셨구나. 내가 사명을 맡았구나!’ 하지만 입을 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체 입을 안 열었습니다. 아무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저한테 암시를 하시고 제게 할 일을 알려주셨다 해도 제가 표시를 하면 알아줄 사람도 없고, 저만 미친놈이 되니까, 또 입을 봉하라고 하셨으니까,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와의 세계를 직접 보고 난 후, 몇 개월 지나 마귀의 세계를 갔을 때에도 그곳 또한 웅장했습니다. 뿔 달린 마귀 두 마리가 나를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예수만 버려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나를 데리고 자기들 세계로 끌고 갔습니다. 입구에서 우상을 봤습니다. 제가 마귀에게 끌려 마귀의 세계에 시험을 당하러 불려갔을 적에, 제일 놀란 게, 바로 그 우상 앞에 끌려갔을 때입니다. 위로 올려다 쳐다보니 우상이 너무 커서

얼굴이 까맣게 멀리 보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좌정하고 있는데, 난 우상이라 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말이 막 나옵니다. 질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공갈 협박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더니, 나를 대왕 앞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은 마귀에 대해 우습게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 또한 무섭습니다. 인간들이 지상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귀 세계의 향로에서 향기로 나타납니다. 육적으로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고사, 굿, 모두 마귀에게 영광으로 올라갑니다.

마귀는 큰 보좌에 앉아 있는데, 양쪽에 부하들이 좌정해 있습니다. 그 눈에서는 불꽃이 튀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머리가 뼈죽뼈죽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지상에서 올라오는 영광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전 세계에서 올리는 영광들을 모두 차지하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영광보다 몇 백 배 많습니다.

그 영광을 전부 다 마귀가 차지하고선, 제사 받는 대로 마귀가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도 해 주고, 잘살게도 해 주고, 부자도 되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이야기만 가득하지, 마귀에 대해 조금도 증거를 안 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요한 계시록에 조금 밝혀 놓았을 뿐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나 그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별것들이 다 있습니다.

마귀는 바다의 신이라 하면 바다를 맡고, 산의 신이라 하면 산

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났던 마귀는 온 천하를 맡았습니다.(눅4:5-6) 마귀 중에서 최대의 권세를 맡은 것입니다.

인간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지내지 않으면 그 집안에 우환이 닥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 제사를 조상이 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조상을 지배하던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제사를 받다가 제사가 안 올라오면 그 집안을 들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 지내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특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오면 마귀가 그날 밤으로 그 사람을 못살게 굶니다. 꿈자리가 사납고 뒤숭숭하고 영망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들 도중하차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영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직접 저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이상 중에 큰 독사 떼 수백 마리가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상 중인데도 징그럽습니다. 뱀이 수백 마리가 독사 굴에서 몰려오는데, 이때 주님께서 입으로 기운을 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기운을 내리 불 때 그 기운에 뱀들이 닿으면 녹아 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세력을 꺾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상 중에 본 것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입니다. 육은 이영수이지만, 이영수를 통해 나가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악령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을 녹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령이 함께하

는 이긴자를 제일 무서워하고 골치 아픈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적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집안에 마귀가 있다면 하나님 사람이 발걸음만 해도 그 마귀는 떴니다. 들어가서 기운을 붙면 마귀들은 풍비박산 됩니다. 그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입니다.

수유리에서 그걸 직접 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축복을 하는데 저쪽 골방에서 할머니 한 분이 있다가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섞’ 하고 기운을 부는 소리가 나니까 빨 달린 시커먼 마귀 세 마리가 그리로 뛰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눈에 그놈들이 보인 것입니다.

이긴자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남을 통해 받은 존재가 아니라, 샘과 같이 솟아납니다.(계21:6-7) 물이 넘칩니다. 계속 넘쳐 나기 때문에 흘러 나가서 상대방에게 물을 담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긴자입니다. 샘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에덴성회 역사가 지금까지 오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권능을 맡겨 주심으로, 앞선 역사를 통해 엉망진창이 된 존재들이 저에게 오면 제가 말씀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씻어서 거룩한 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전체가 이 역사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신앙 자세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은혜로, 말씀으로 다듬어 세워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 이러한 직분이 오늘날 이긴자의 직분입니다.

이긴자의 직분은 물에 축복을 하면 그 물이 생수가 되어 주의 보혈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계11:6) 모르면 못 따라옵니다. 주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너에게 다시는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할 것이고, 더러움이 깃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불담으로 지켜 주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 저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의 자유입니다.

제가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께 어떻게 은혜를 끼쳐 줄 수 있겠습니까?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호흡을 같이해 왔으니, 주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나가고 말씀이 나가는 것이 한 번인들 흔들려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옥을 면치 못할 생명에게 완전히 지옥을 면하게 해 주는 권능을 갖고 움직입니다. 영을 살리는 권능입니다. 모세는 사람 하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도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베풀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바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Chapter 40.

알곡성전 건축 지시

1989년 10월 3일, 16주년 기념예배 화요일 새벽 설교 중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알곡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나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알곡성전의 될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최초로 지시받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1979년입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짓고 내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상 중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알곡성전을 시작하게 된 최초의 지시였습니다.

그 후 좀 지나서,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1982년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이때는 인천제단을 지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의 힘으로 정성껏 건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곡성전이 건축되는 지역을 보여주셨는데, 청평 쪽입니다. 길이가 250m나 되는 지역이고, 넓이가 50m가 되도록, 길이와 폭을 이상 중에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될 일이니까 철저하게 길이를 재느라고 줄자를 가지고 잴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1983년 2월 20일 일요일인데, 이때는 우리 알곡성전이 들어서려는 주위 환경을 보여주신 겁니다. 새 성전이 완전히 초목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산세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상 중에 보여주셨어도 산을 많이 다녀보지 않아서 그냥 주위의 초목이 우거지고 경치가 좋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이상 중에 성전이 건축되고, 잔디가 만들어지고, 불빛이 휘황찬란한데, 성도들이 즐겁게 걷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늦게까지 얘기하는, 오늘날 현실과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졌으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생각을 할 때는 참 암담한 얘기였습니다.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정도로 암담했지만, 이상 중의 장면은 화려하고 찬란한 빛 가운데서 양떼들이 기뻐하니, 주의 종이 현실은 아닐지라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가운데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1983년도 2월 20일, 그런 식으로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라는 윤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1년이 지나서 1984년 8월 20일 일요일, 이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모양을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왔습니다. 성전의 종각 위가 햇볼 모양인데, 별관 종각

도 같은 모양입니다. 성전의 종각은 크기가 6m로 올라갔는데, 별관은 3m밖에 안돼서 절반 크기입니다. 이것을 주차장 아래에서 보면 크기가 똑같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앞면은 위쪽으로 향해 있어 주차장에서 멀고, 별관의 앞면은 아래쪽인 주차장 쪽으로 향하고 주차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 아래에서 보면 같은 크기의 햇불과 햇불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나의 두 증거자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계11:3-4) 햇불 모양이 두 촛대의 상징인데, 분명히 크기가 다르지만, 주차장에서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저도 시키는 대로 해 놓고 보면, 항상 신기하게 성경과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 종각이 햇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지낼 때의 불을 말하는데, 지금 성전과 별관 종각에 밤에 조명을 켜면 불꽃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보기에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하여, 두 촛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건축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1별관을 건축할 당시, 저는 3층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1, 2층을 사무실로 쓰고 3층은 제단이고, 당시 이 지역에서 4층 건물은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곳이어서 못 짓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4층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바빠 움직여서 오늘날처럼 4층까지 된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보여주신 것이, 종각이 올라가는 전면에 십자가를 놓고, 좌우에 일곱 천사가 새겨지고, 그 다음 옆면에는 두 감람나무의 잎이 늘어뜨려진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상 중에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이상 중에 보여주심 받았던 것을 현실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건축을 해라 하셔서, 그 후에 우리가 여기에 계약을 하고 와서 땅을 보니, 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수공장 밑으로, 주차장에서 위로 볼 때 왼쪽은 1별관인 식당, 오른쪽은 2별관인 휴게실 아닙니까? 그 휴게실도 입구가 ㄱ자 형태로 있는데, 땅 모양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건축한 겁니다. 처음에 3단계로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1단계는 양 좌우에 두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볼 때 왼쪽에 1별관을, 오른쪽에 2별관을 짓고, 2단계는 1, 2별관과 알곡성전 중간에 있는, 이전 생수공장 자리에 3별관을, 3단계는 그 위에 알곡성전을 짓도록 보여주셔서 그대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곳이 정해 주신 장소인지, 도저히 산세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고, 몇 번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봐도 그곳이 아니어서, 결국 나중에 제가 마음이 조급해서 기록을 전부 들추면서 볼 때, 청평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 땅을 찾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가 맞다.”고 알려주시면서 “공사를 강행하라.”고

하셔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 땅을 사려고 할 때, 주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2주 만에 갑자기 한국으로 오게 돼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떨결에 팔고, 나중에 얘기하길,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파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땅도 분할해서 팔았는데, 어떤 데는 산 값보다 더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의 땅이 여기 섞여 있었는데, 목장 것까지도 일일이 구입할 때 하늘에서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상 중에, 땅을 구입할 때는 주위에서 땅을 팔아야 될 조건을 만들어 주심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별관 지을 때도 알곡성전이라고 크게 표지를 붙인 산이 당시 남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팔라고 해도 안 팔았습니다. 1별관이 그 산에 연결된 건데, 그 사람 허락 없이 1별관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마침 건축 직전에 그 집안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땅을 팔아야 해결되는 문제가 집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그 액수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다급해서 우리에게 팔았고, 지금처럼 1별관을 지어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니 오늘날 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제3자들이, 소위 말

해서 사회의 고관들도 와서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차례가 오지도 않습니다. 이 땅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땅을 팔아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왔었고, 여러 단체에서 왔었는데, 일체 안 팔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팔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금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경춘가도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이 있었던 노선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니, 될 수 있으면 훼손을 하지 말라.”고 당시의 박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했던 곳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국도가 경치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 강북이라 건축에 있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울 본 제단 지을 때도 주택공사에서, 이곳이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집 얻으려 다녀도 없고, 누가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곤란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그날, 장규원 장로는 주택공사로 서류 가지고 들어가고, 장승렬 장로와 저는 다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장규원 장로가 갔다 오더니 통과되었다고 해서, 아주 기쁘고 마

음도 편안했는데, 집에 돌아와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장규원 장로가, “지금 주택공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를 허락할 수 없답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해서, 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해도 전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 제가 양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갔더니 해당 공무원이, “큰일 났습니다. 거기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인데, 내가 30년 공무원 생활한 사람인데, 이런 실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계장, 과장까지 다 나와서 비는 겁니다.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백지화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눈 딱 감고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사람들이 구청에 압력을 넣어서 건축을 못 하게 방해했습니다. 한 달이 넘어도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이 풀려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주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9월에 땅을 샀지만, 11월 5일에야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건축이 시작될 때, 날은 추워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대단했습니다. 종각을 올려야 하는데, 얼었다 녹으면 그냥 무너져 내릴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그때 아현동 제단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라, 시급히 새로 제단을 마련해야 하는 여건이어서 큰일이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붓는 날인데, 다음날 아침에 영하 14, 15도로

내려간다고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약 2시간 지났는데, 라디오 방송의 일기예보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영하 14도 된다는 날씨가 그날 아침에 영상 5도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늦게까지 날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각을 다 올리고 나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면서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때 종각 뼈대만 세워 났는데, 제가 “저거 바람에 무너지지 않겠나?” 하니까, 이장호 장로가 “안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 표정이 약간은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아현동에 12월까지 있었는데, 아현동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12월 말까지 있다가, 본 제단 벽도 못 바르고 이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 역사가 파란곡절을 겪으면서 해 나왔습니다.

1984년 8월 20일, 하나님께로부터 알곡성전에 대한 내용적인 것을 지시받았고, 85년 7월 1일인데, 지금은 성전 경내로 들어오는 입구가 넓지만, 당시 이상 중에, 확장 공사를 하되 우리 지역은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라 하셔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양쪽에는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를 예쁘게 만드는데, 여기에 성도들이 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길에 관해 1985년 7월 1일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후, 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길을 넓혀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곡성전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길을 넓히라고 하셔서 갑자기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없는 가운데서도 길을 넓혔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지금쯤 와서 길을 넓히려고 했으면 큰 일 날 뻔했습니다. 땅값을 엄청나게 부릅니다. 그러니 그때 제 생각대로 했었다면, 길을 넓히기는커녕 외길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것을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고 했는데, 앞으로 완전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6년 7월 16일 이상인데, 제 기억으로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성전 건축을 우리 양떼들 손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건설부의 모든 멤버들이 완벽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사회 사람을 써야 되나? 우리 식구들만 가지고, 늦어도 무리하게라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86년 7월 16일, 알곡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건설부의 기술이 부족한 건 타인의 손을 빌려서라도 완벽하게 하라는 이상 중의 장면이 있어서, 주의 종이 편안하게, 우리 기술로 안 되는 건 사회 사람을 불러서 건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늘에서의 보여주심이 없었으면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양떼들 손으로 하라 하셨는데, 제가 편하게 하려고 사회 사람을 부른 것같이 생각할까 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허락이 계셔서 마음 편안히, 우리 양떼들이 못

하는 건 사회 사람을 불러서 건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시다만, 사실은 대단히 많습니다. 한참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울 때는 사흘돌이로 보여주셨습시다. 제가 좌절할까 봐 얼마나 신경 쓰시고 붙드셨다 하는 걸 제 자신이 먼저 느끼고 압니다. 우리 기반이 어느 정도 닦이니까 그렇게 사흘 간격으로 보여주시던 것이 사라진 겁니다. 하늘에서 안심을 하신 겁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성령이 염려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생수 공장을 인수하기까지, 일일이 얘기 못 하지만, 참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 주인이 그걸 내놓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투쟁이 치열하고 대단했습니다. 백 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수된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참 아쉬워합니다. 지난 여름에 정부에서 전국의 수질검사를 했는데, 여기 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맛이 우선 입에서도 좋거니와, 물에 영양이 그렇게 많합니다. 우리야 물이 어떻게 좋은지 뭘 압니까?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차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물을 마시면서 이 산세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금자리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편안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돼서 좋고,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 알곡성전이 거의 다 되어 도로도 마무리 작업이 끝나서 넓어지고,

아주 멋지게 뒀습니다. 도로도 새로 꾸미니까 곳곳이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플장도 그전에 보여주신 게 있어서 그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하고 수영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볼지 몰라도 주의 종으로선 감회가 어린 겁니다. 보여주신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갈 때, 참 하나님 앞에 감개무량한 겁니다.

Chapter 41.

알곡성전 건축 후 이상

2006년 3월 19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요한 계시록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 보면 하늘에 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을 못 본 분들이 빨리 납득을 하시려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얀 구름들이 두껍게 있다가 그 구름에 약간 구멍이 나듯, 구름에 틈이 생기면 구름 속으로 새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그때는 문이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파란 하늘에 구멍이 뚫리듯 열립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하늘이 뽕 뚫리면 하늘나라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빛이 내려오면서 말씀을 주

신다든가,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상에서 보니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갑니까? 비행기 타고, 제트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다 해도 무엇을 타고 올라갈 겁니까? 아무리 꿈이라도. 바로 이때 순식간에 몸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걸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도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감동을 받아서 즉시 하늘나라에 도착한 장면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구절이 나오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보좌가 있는 장면을 바로 보게 된 겁니다.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본 분들은 알 겁니다. 해외에 가기 전에는 뉴스에서 여기가 로마입니다, 여기가 다뉴브 강입니다, 이게 센 강입니다 해 봤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어느 날 다뉴브 강이 나왔다, 센 강이 나왔다 하면 “아, 저긴 내가 갔던 곳이야.” 금방 이해가 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의 눈에는 그게 낯설지 않습니다. 금방 압니다. 왜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나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게 같은 분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감동을 받기 직전에 들린 하늘의 음성이 뭐냐? “내가 너

에게 이 일 후에 될 내용을 미리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선전하는 걸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정하신 것을 미리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알곡성전을 건축한 다음,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운 가운데 내 성전을 건축하느라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해 주마.” 하고 말씀 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지금도 만족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상으로 갚아 주시면 저는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늘을 여신 겁니다. 우리 알곡성전 앞에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옆에 제가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을 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제게 말씀하실 적에, 안개가 자욱한데 그 보좌에서부터 오솔길처럼 굽이진 광채가 내려오더니, 그 광채가 안개 속을 거쳐서 우리 분수 앞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저한테 “이리로 오라.”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가서 쳐다보니, 옷자락이 늘어진 보좌가 보이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하라고 보여주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알곡성전을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습니다. 이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것이지만, 천국연회장은 하늘에서 주님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14만 4천을 위해 최대의 연회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4만 4천의 하나하나를 다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하기까지, 구약 시대 사람이든 신약 시대 사람이든 멜기세덱의 첫 열매로서 주님이 주장하시니까, 주님이 14만 4천 명을 다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개하시는 14만 4천들이 배열을 하여 좌석에 앉고,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관중석에서 볼 수 있도록 대형화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알곡성전을 만드는 거룩한 이 땅에 제가 천국연회장을 짓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상 중에 H빔을 사용해서 짓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거룩한 성을 보여주시는 중에 14만 4천의 심판 왕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사무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방마다 명패가 붙어 있는데, 저는 14만 4천이 들어가는 사무실이라 해서 이상 중이더라도 엄청 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은 국회의원 의원회관에 있는 사무실 비슷하게, 한 삼십오 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 단 하나 다른 게, 이 세상 사무실들은 보석으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번쩍번쩍 거립니다. 복도도 황금입니다.

그런데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도 없는데 어떻게 광채가 나나, 이렇게만 생각하다 했는데,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와 달이 없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빛이 되심이라.”(계21: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흉내 내려니 간접등을 해야 합니다. 간접등이라야 직접 비치지 않고도 환한 빛이 있게 됩니다.

천국연회장 방들 중에 하나는 왕들의 사무실을 흉내 내서 비슷하게 보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14만 4천이 앉는 좌석, 이것 또한 스물네 개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샘플로 해서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할 건데 스물네 석이 뭐 필요하나, 비싸니까 열두 개만 만들자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의 세계에서는 의자 하나가 거의 한 평을 차지합니다.

또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상을 주시는 주님을 흉내 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곡성전 공사할 때 일하던 장면들을 비디오로 틀어서 화면으로 크게 나오는 걸 같이 보면서,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을 부를 겁니다. 십 몇 년씩 다 지나고 했으니까, 청년은 중년이 되어 있을 거고, 중년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거 보라. 저게 당신이 옛날에 일하던 장면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회가 어릴 겁니다.

그때 저한테 보여주실 적에 주님이 입으신 옷이 광채 나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잠옷 비슷한데, 수건 같은 천처럼 되어 있는 옷입니다. 약간 회색빛이 나는, 점잖은 옷으로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천을 찾을 겁니다. 제가 비슷하게 입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집안사람들이 수염이 없는데, 다행히 제가 이긴자가 되면서 수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선 수염을 좀 기를 겁니다. 주님처럼 약간 기르고 흉내 낸 다음에 행사 끝나고 바로 깎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주심을 받은 것을 그대로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어찌다가 주의 종이 되어서 이런 걸 다 해 보고 사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동화 같은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도 제가 꾸밉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금장식을 하는데, 나무속을 파 금도금 집에 맡겨서 만들 겁니다. 문도 그렇게 해서 사무실도 한 칸만 꾸며 보려고 합니다. 꾸며 놓고 설명을 하면 ‘아, 영의 세계에 가면 14만 4천이 들어가는 사무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라는 건 실제 보기 전에는 엄청나게 신비하게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상에서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깊은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동화같이 듣게 됩니다. ‘쇼를 한다.’, ‘저 사람 거짓말 참 그럴싸하게 하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영의 얘기를 제가 많이 안 합니다. 성서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Chapter 42.

원시생활 모습과 가인의 표

2006년 9월 24일, 주일 낮 설교 중에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구상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류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6천 년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원리가 무색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6천 년을 흘러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지가 발달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이 교류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전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류의 모든 역사로 주장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앞뒤가 맞지 않는 구절이 더러 있습니다.

그 예가 가인과 아벨 시대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자

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받을까 봐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니다.(창4:14) 성서의 원리대로는 아담, 하와하고 가인과 아벨, 네 식구밖에는 지구상에는 없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면 세 식구가 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 할 것을 염려하는 구절이 있고, 또 해코지 못 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창4:1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옛날에 설교를 할 적에,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다. 그럼 어떻게 양쪽이 맞느냐? 그 이유인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살고 있었던 곳이 에덴동산이었고, 그 에덴동산에서 살 때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고로, 아담의 모습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서로가 보지 못하던 것도 보게 되고, 부끄럽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서 앞을 가리게 해 줬다는 식으로 성서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창 3:11, 21)

주의 종은 영적인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류가 범죄한 다음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흑독한 형벌 속에서 살아가는 장면입니다. 거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2, 30명씩 와와 하면서 몰려다니고, 몽둥이로 짐승을 잡아서 날

로 먹다시피 하고, 큰 통나무로 동굴을 막아 큰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삽니다. 이상 중에 볼 때 큰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8미터는 되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 ‘어이’ 하고 거의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물려다닙니다.

그렇게 살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는 가운데 문명이 발달해 갑니다. 그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석기 시대다, 청동기 시대다, 철기 시대다, 이러면서 발전해 나오는 과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인의 표는 동판으로 등글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하나님의 사자인 네 짐승, 그룹들을 새겨 넣었고, 뒤에는 상형문자로 ‘이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뜻의 표적을 주셨음을 제가 이상 중에 봤습니다.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가인은 농사짓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창4:2) 그러니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문명이 발달한 이후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 아벨을 아담, 하와의 자식으로 표시했는가? 실제 아담, 하와로부터 가인, 아벨 시대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교류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 부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가인, 아벨을 바로 아담, 하와로 연결시킨 겁니다.

앞으로 주님의 형상이 그려져서 곧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33세에 십자가

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20대 때의 청년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주님께서 목수 일을 하시다가 방에 들어가셔서 책상에서 이사야서를 펴고서 고민하시고, 당신이 당할 일을 아시고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 뜰에서 계신 장면이라든가, 또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오천 명을 먹일 때에 축복하시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간 동안에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시신을 내릴 때에 그 노란색의 핏기가 없는 주님의 시신을 내리던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오래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2천 년 전의 주님에 관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네가 본 바를 증거해라.” 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오늘날 그림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어느 정도 수공을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현재의 주님의 모습은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생기셨든, 부활 승천하셨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따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두 감람나무의 역사에서 영적인 일을 해야 하는 주의 종이다 보니까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었고, 모든 걸 아니까 이제는 드러내서 그것을 사회에 알리면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과거 이 땅에 계시
때의 모습하고, 현재 영의 세계에 계시는 모습이 알려진다는 것은
놀라운 애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만나면 나를 만
난 것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 하는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가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데, 바
로 지금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원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문명이 발달하질 못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
고 쫓겨나기 전에 살던 에덴동산이라는 곳은 지구가 아닙니다. 아
담, 하와는 지으심을 받았을 때 육이 아닙니다. 그 생명체가 따먹
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들어올까 봐 그룹들
을 시켜서 화염검으로 지켰다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창3:24)

다시 들어올까 봐 지켰다는 것은, 그 자리가 쫓겨 나간 장소하고
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쫓겨나서 사는 곳은 어디냐? 현재 인간이
사는 세계입니다. 아담, 하와가 어딘가에서 사는데, “너 나가라. 여
기서 못살아.” 해서 간 곳이 지구라면, 그 나가라 했던 장소가 지구
가 아니어야 그 말이 해당되는 겁니다. 또 그룹이라는 것은 네 생
물, 천사장이 되는 건데, 천사가 못 들어오게 지켰다면 쫓겨나는
아담, 하와가 육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는 겁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에덴동산을 들어갈 때, 그 세계가 지구와 똑같다면 사람들의 몸에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전15:53) 하고 변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요한 계시록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요한 계시록이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영의 세계에 있는 주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할 때의 주님과 모습이 다릅니다. 빛이 납니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주의 종의 처음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 될 것이며, 대단히 문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영수라는 사람이 진짜 뭔가 보긴 봤구나, 이걸 입증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얼굴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세계 전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니 주께서 자비롭게 웃으시면서 권사님을 맞이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림으로 보다가 직접 보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이시네!” 금방 압니다. “너는 내 그림을 봐서 나를 금방 알아보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저 역시 유대 땅에 계셨던, 수염 많으시고 늙수그레한 주님만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젊으신 분이 오셔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했던 겁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보는 거니까. 그 때 미소를 띠시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 나하고 내 아버지께로 가자.” 이래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그 장면, 여호와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이 아뢰고 제가 무릎 꿇고 앉은 장면, 이것도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거룩한 성을 보여줘라.” 할 때 천사가 안내해서 제가 본 바, 그걸 윤곽으로 해서 앞으로 집을 만듭니다. 사도 요한이 보지 않았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아주 깨끗하게 광채가 나며 내려오더라, 하고 요한 계시록에 있습니다.(계 21:2) 사방이 열마고, 열두 문이 있고, 진주로 꾸몄고, 이렇게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그림도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성곽도 짓고, 이런 게 오늘날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판으로 해서 천국연회장을 건축하고, 그 로비에는 이상 중에 주님이 보여주신 각종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걸어놓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서 책자를 만들어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과연 영의 세계가 이런 건가,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 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